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3월 2일)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연기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결정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유례없는 봉축 연기…"코로나19 극복 함께"

종단협 18일 발표… 봉축법요식 윤4월 8일에 봉행

4월 30일 기도 정진 입재
연등회는 5월 23일로 연기
"국민과 함께 극복해나갈 것"
코로나19 따른 탄력적 운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개최를 비롯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앞둔 불교계가 유례없는 한 달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문 폐쇄와 법회 취소 등 다양한 선제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연간 최대 행사마저 연기하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고려시대 연등회 이후 근현대까지 긴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의 연기 결정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종단협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과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 등 부회장단이 함께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현수막 앞에 선 원행 스님은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법회 등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자제토록 해왔고, 모든 사찰이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제 더 나아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위기로 인한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봉축행사 일정을 윤4월인 5월로 변경해 치를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오는 4월 30일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윤4월 초파일인 5월 30일로, 4월 25일 예정된 연등회를 5월 23일로 일정을 바꿔 개최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 종단협 소속 1만5000개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입재해 한 달간 정진한 뒤 연기된 법요식에서 회향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에는 윤달을 '걸릴 것도 없고 탈날 것도 없는 공달'이라 했다. '윤달을 만나 불공을 드리면 극락세계를 간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앞다퉈 모인다'는 옛 문헌의 기록도 있다"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연등회를 윤4월로 연기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기가 종식돼 국민과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길 발원하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계가 주요 봉축행사 연기를 결정하면서 세부적인 행사들도 모두 일정이 변경됐다. 가장 먼저 불교계는 4월 30일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 기도정진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황룡사9층탑 점등식을 봉행한다.

이후 불교계는 각 사찰에서 기도정진을 이어가며, 5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국대 대운동장과 종로 일대서 어울림마당 및 연등행렬을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행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축제형식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행사를 기획키로 했다.

연등회 다음날 진행되는 전통문화마당도 24일 낮 12시부터 문을 열지만,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운영을 예고했다.

가장 주요한 행사인 봉축법요식은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한 전국사찰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난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회향'의 법석으로 마련된다.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나누고,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된다.

원행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조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쏘았는지를 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독 묻은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 불제자들이 이 시대의 만파식적이 되고 팔만대장경이 되겠다. 전국 사찰에서 목탁과 법고를 치고 범종을 울리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로, 1975년 공휴일 지정 이래 가장 빠른 날짜이자 첫 4월의 부처님오신날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2월 말부터 연등회를 비롯한 봉축행사 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인터뷰 2면〉

전국 불자들 코로나 '방역' 나선다

민 · 관 합동방역, 캠페인 등 릴레이 동참

태고종, 진안군서 예방 방역
부산 · 안산 불교계 봉사 나서
"방역봉사 통해 마음 치유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의 방역 봉사가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종무원장 진성, 마이산탑사 주지)은 3월 9일 진안자원봉사센터, 상전 7733부대와 진안군 일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방역은 2인 1조로 스님들과 군인들이 같은 조로 나누어져 소독봉사를 진행했으며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부원장 도홍 스님, 종회의장 법전 스님, 총무국장 행담 스님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과 영산작법보존회 영산스님, 지산 스님,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원 등 1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안읍 13개 행정리 1233호의 상가와 가정을 방문해 집중방역을 실시했다.

진안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번 방역활동은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국민 고통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불교계가 관, 군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는 수행도량 보문선원과 승가결사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 3월 8일 안산 월피동 상가건물과 빌딩 50여 곳의 엘리베이터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이사장 보림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불자 30여 명이 동참했다. 봉사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보문선원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사찰 단위의 방역과 함께 불자 개개인의 방역봉사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김해에서 주도하고 있는 방역 캠페인 현장에서 방역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총 3차에 걸쳐 방역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차는 각 시설에 대한 전체 소독약 살포, 2차는 소독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한 손잡이와 금속물질에 대한 방역이다. 3차는 바닥에 대한 재소독이다. 현재 15명의 불자들이 이 방역캠페인에 동참 중이다.

현재 방역이 진행되는 곳은 학원과 식당 등으로 방역 활동영상을 통해 업주 및 학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시장에 가니 상인들이 그동안 마음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호소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희망과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꼼꼼하게 방역활동으로 위로를 주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스님은 끝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특히 방역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방역을 시도조차 못하는 곳이 많다. 방역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축표어 '자비로운 마음 꽃피는 세상'

봉축위 3월 18일 발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으로 결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표어는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꽃피워 사랑, 나눔, 행복, 평화가 세상에 피어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꽃에 비유해 함축적으로 표현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으로 선정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봉축위는 이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히 꽃피길 기원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발원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국민 건강 우선한 대승적 결단”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연장’ 의미를 듣다

글=신성민 ·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부터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우선한 대승적 결단입니다.”

3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만난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사진>은 불교계의 봉축 기간 연장 결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기실 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간 연장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로 1975년 공휴일 지정 이래 첫 양력 4월 부처님오신날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연등회 등 봉축행사 연기를 깊이 고민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한 불교도의 최대 축제일을 뒤로 미루는 것에 고민과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고 괴로운 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유마 거사의 말처럼 우리 불교계는 이웃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종단의 본말사들도 90%에 가깝게 ‘기간 연장’에 찬성했고, 이를 결정해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4월 30일에서 윤4월 8일인 5월 30일로 연기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도 5월 23일로 날짜가 변경된다. 기존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부터 한달동안



한 달간 코로나19 극복 기도
종교, 비타민 같은 존재돼야
“5월30일 병마 극복 축제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사찰들이 일제히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진행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종교는 국민 생활의 윤활유가 돼야 합니다. 심리적 비타민 같은 존재여야 하죠. 특정 종교에서 예배를 강행하는데 이는 국민과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심 스님은 한 달의 시간이 생긴 만큼 더 여법하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를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5월 30일 법요식이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기원도 전했다.

“4~5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5월에 열릴 연등회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찬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불교가 함께해요”

조계종 비롯한 각 종단 · 단체 성금 전달 등 자비행 잇달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잇달아 자비행을 펼치며 바이러스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지난달 부산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3월 12일 대구시에 1억원을 희사했다. 아울러 팔공총림 동화사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총 6000kg의 백미를 기탁했다.

이어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3월 19일 동국대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에 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국대의료원에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대신 전달하게 됐다”며 “이 기금은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성금인 만큼 뜻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돕고자 3월 19일 동국대 일산 · 경주병원에 각각 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성민 의료원장.

이에 조성민 의료원장은 “현재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계종의 귀중한 성금은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BTN불교TV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하루 전인 3월 17일, 불교TV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불교TV 변대용 총괄국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한 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총지종도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희망의 불씨가 되는 의료진, 관계자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천태종 NGO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는 3월 16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를 방문, 현장 관계자들에게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천태종은 손 소독제와 고급 물티슈, 비타민음료, 구급약품, 기능성 장갑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고호석 대구시 재난팀장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서울 삼천사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3월 16일 은평구청에 2000만원, 강화 보문사와 전등사, 강화불교사암연합회가 19일 강화군에 1300만원을 전달하며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과 공무원을 위한 특별 지원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문화사업단의 공익사업인 ‘나눔 템플스테이’ 일환인 이 프로그램은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인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는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휴식하기 좋은 사찰 10여 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최대 3박4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위로와 힐링의 의미를 담은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의료인 등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본 뒤 해당 템플스테이의 연장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제언] 코로나19 퇴치, 무엇을 할 것인가

반야심경 암송하며 손 씻자

코로나19는 현실이며 장기화가 예상된다. 국민적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사회의 대소모임이 중단되고 상권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사찰이 법회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사는 피로에 지친 불자와 국민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예절을 정해서 숙지토록 하고, 참배와 도량 순례 그리고 경내지의 등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법당에서 참배도 조심스럽고 부처님오신날 법회도 연기되었으나 신심은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미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몇 가지 사항을 예시하는 바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먼저, ‘반야심경 손 씻기’의 실천이다. 손 씻기를 우리 의학계는 30초, 미국은 25초 정도를 권장한다. 이를 셈하기가 어렵다. 개인차이가 있으나 반야심경을 속으로 빠르게 암송하면 대략 30초 정도 걸린다. 반야심경을 암송하면서 비누칠 손 씻기를 한다.

다음은 법당 방석의 위생상태 유지다. 법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불자들이 방석 위에서 절을 한다. 이때 입이 방석에 밀접하게 되고 혹여 염불이나 기원을 말할 시 입이나 코의 비말이 방석에 묻을 수 있다. 마스크 여부와는 무관하며, 방석에 얼굴이 접하는 곳에는 개인 수건을 펴거나, 일회용 종이를 깔고서 한다. 사찰에서는 방석의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산행 또는 사찰 참배 시 가능한 앞사람과 3-5m 거리를 유지하며 걷는다. 상대와 교차 보행 시 가능한 거리를 멀리하고, 좁은 곳을 교차할 시는 상호 간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서 대면을 피한다.

법당에 참배는 가로 세로 각 약 2m(한 평 기준)에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참배객은 빈 공간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염불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한다.

참배는 가능한 빠르게 하고 법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개인적으로 촛불이나 향은 올리지 않는다.

아는 스님이나 불자를 만나면 합장으로 인사하고 ‘엄지 척’으로 마음을 전한다. 대면 대화 시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당분간 사찰에서는 공양을 하지 않으며, 차나 음료수를 마실 경우는 개인용기를 휴대해서 사용하거나 당분간은 일회용을 사용한다.

만일을 대비해서 매일의 개인일정을 기록한다. 방문처와 만난 사람들을 개인 일기장이나 휴대폰에 기록으로 남긴다. 휴대폰 등으로 이웃에게 응원과 안부를 수시로 전한다.



반야심경 속독, 대략 30초
꼼꼼한 손 씻기 시간 적절
법당 방석 사용도 주의를

산중의 공공 약수는 당분간 마시지 않으며, 사용한 휴지나 기타 물건은 집에 갖고 가서 처리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불자들은 ‘약사여래 발원등’을 하나 더 밝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서 코로나19의 조속 퇴치를 발원하고 보살행에 솔선수범하는 사찰과 스님을 응원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발원하는 특별 등을 하나 더 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장에서 구매 시 만원어치 더 사기, 한 물건 더 구입하기 운동으로 사회저변부터 시장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한다. 자리이타 보살행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

코로나19에 정신이 집중돼 사찰의 안전사고나 이교도의 훼불도 우려된다. 사찰은 안전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폐렴균,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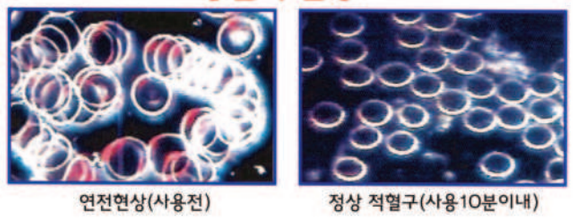
폐렴균과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폐렴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며, 폐렴 예방은 물론 퇴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는 ORAL MATE®치약은 **식중독** 및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과식**이나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 때, **취기**가 올 때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술도 빨리 깨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잇몸이 약하고 아플 때, 이가 시릴 때,** 아픈 부위에 ORAL MATE®치약을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사라집니다.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합니다.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으며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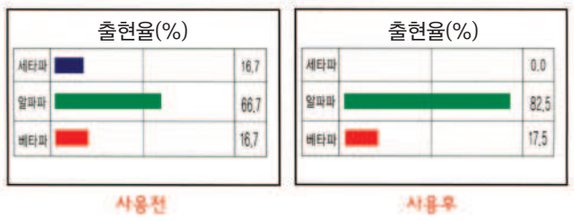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는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발빠른 불교 대응, '긍정' 인식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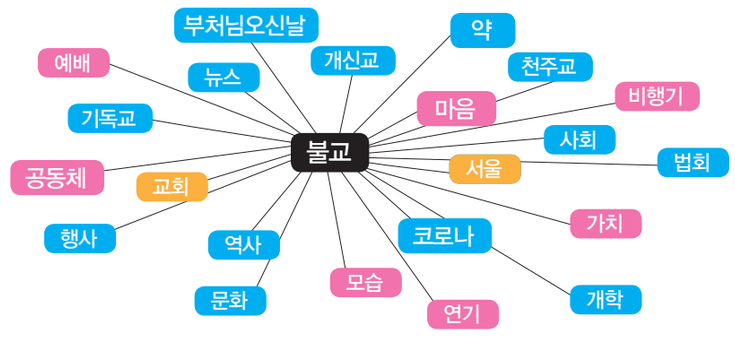
[분석]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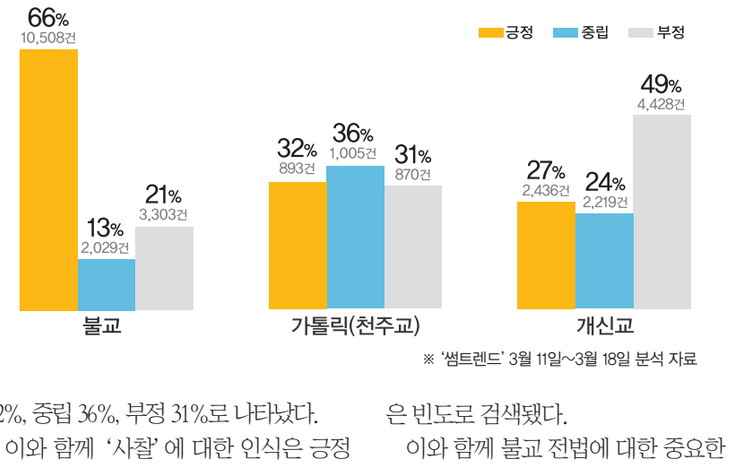
종교 SNS 빅데이터 조사
긍정, 불교'66%' 개신교'23%'
'포교' 용어 부정평가 늘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가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서 '불교'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계의 부정평가 증가와 대비되는 가운데, '마음치유' '마음방역' '위로' 등 불교 전법과 관련된 행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SNS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불교'에 관련된 긍정 인식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의 코로나 확산 시기, 발빠른 대처가 국민들의 불교인식 개선에 긍정 효과를 불어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 '썸트렌드' 3월 11일~3월 18일 분석 자료

본지가 3월 19일 썸트렌드 평판분석을 통해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1개월간 '불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SNS상 긍정의 글은 1만8741건으로 59%, 부정의 글은 7698건으로 24%였다. 조사기간을 좁혀 3월 11일부터의 1주일간 불교에 대한 인식은 긍정 66%, 부정 21%로 긍정적인 글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코로나 확산에도 예배 등을 강행한 '개신교'의 경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 '개신교'에 대한 인식은 1개월간 긍정 23%, 부정 56%로 부정적인 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간을 1주일로 좁히면 긍정 27%, 중립 24%, 부정 49%로 집회 중단 등 조치를 통해 조금씩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주교'의 경우 1개월간 긍정 34%, 중립 25%, 부정 41%였으며, 1주일은 긍정 32%, 중립 36%, 부정 3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찰'에 대한 인식은 긍정 43%, 부정 20%였으며 '스님'에 대한 인식은 긍정 61%, 부정 19%로 '교회'의 긍정 20%, 부정 48% 인식과 '목사'의 긍정 30%와 부정 41%에 비해 높은 긍정 인식을 보였다.

코로나 확산기간 동안 '불교'와 관련된 주요 연관검색어로는 '마음' '부처님오신날' '공동체' '가치' '약' 등이 높은 빈도로 검색됐다.

이와 함께 불교 전법에 대한 중요한 용어인 '포교'에 대한 인식은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 부정적 용어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포교'에 대한 평판 인식은 1개월간 긍정 15%, 부정 59%였으며, 1주일간 긍정 16%, 부정 41%였다. 또한 연관검색어로도 '신천지' '코로나' '위장' '수법' '사이비' 등 불교계가 가진 '포교' 용어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드러났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과 교수는 "불교계의 발빠른 대응이 주효했다. 특히 법회 중단 후 불교계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이어 교회 예배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부처님오신날 행사 연기 방침이 밝혀지며 효과를 본 듯하다"며 "앞으로 국민 템플스테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를 더욱 알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마음' '치유' '마음방역'과 같은 용어에 대한 검색빈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교수는 "사회적 격리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인과 우리 사회에 드리운 외로움, 불안감일 것"이라며 "불교가 가진 염불기도, 명상 등이 이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유와 상담 등에 기반한 활동을 더욱 늘려 향후 포교 기반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승가대학원 조건부 입학 허용

4급승가고시 접수자 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찰 승가대학원과 염불교육 진행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입학 전형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6일 예정됐던 4급 승가고시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과 염불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에 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이는 4급 승가고시 이후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수지하게 되는 구족계를 고시 연기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4급승가고시 응시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사찰 승가대학원과 특수교육기관의 입학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시행되는 4급승가고시에 불합격하거나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된다. 한편, 조계종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은 전국 19개가 있으며, 특수교육기관(염불교육)은 4개가 운영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학구열'

동국대 경주캠 비대면 온라인 강의
직접 동영상 강의 제작키도
실시간 강의… 편의 · 질 높여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 강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코로나19로 개강을 2주 연기한 이후 개강한 3월 16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향후 3주간 진행된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로 이뤄진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교수, 학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했다.

온라인 강의 전용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과 FAQ, QnA 게시판을 운영하고, 밤 9시까지 헬프 데스크를 가동해 상담 전화를 열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우수 사례를 교수들에게 공유했다.

3월 16일 오전 9시 첫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 주수언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는 "수업마다 학생들과 지난 주 3일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클래스에서 온라인강의를 연결해서 실제 수업과 똑같이 출결이 이뤄지고, 아이피주소나 학습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수업 운영이 실제 현장 강의와 같이 공정하게 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수언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가 3월 16일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호응도 긍정적이다. 같은 날 강원도에 거주하는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들은 김원희(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은 "이클래스에서 강의를 보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교수님께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바로바로 받으면서 실제 수업하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영상 강의를 직접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1인 강의 제작도구를 직접 사용해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 학내 이클래스에 올린다.

이영찬 교수는 "실시간 강의와 달리 완성도 높은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면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내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대학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명상 대가, 선승들의 결집
〈禪僧〉

3월 12일 참선지도자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

참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참선명상 보급에 앞장 서 온 한국참선지도자협회(협회장 각산)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활동 전개를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하 참선협회)는 국내 유일 국가등록 '참선지도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참불선원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서는 참선지도자협회를 이끌어온 각산 스님의 발의로, 전국선원수좌회 상임 대표 의정 스님이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협회장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 의장은 선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연수원장은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교육원장은 금강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회장), 간화선 연구원장은 정과 스님(대승사선원 한주), 경영위원장 이용태 변호사(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를 등기 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

참선지도자협회는 선승과 각 단체의 참선 명상지도자가 모여 1700년 '참선(參禪)'의 대중화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등불을 밝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출범했다.

참선지도자협회의 구성은 간화선 대종사인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 보광 스님(해인사 희랑대 조실), 혜국 스님(석종사 조실), 혜거 스님(금강선원 조실), 일오 스님(내소사 선덕), 정찬 스님(대흥사 유나), 영진 스님(백담사 유나) 등 원로 선승을 모시고 청안 스님(형가리 원광사 주지), 종묵 스님(수도암 선현), 담마끼티 스님, 전현수 정신건강전문의, 김열권 원장(위빠사나 붓다선원장), 킴킴(마이크로소프트 명상가) 등 명상마스터와 28개 수행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의정 스님은 "참선지도자협회를 중심으로, 간화선이 명상과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불교가 세계화되어 인류중생들을 이끌어 가려면 참선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선지도자협회는 '2018 DMZ 세계평화명상대전'과 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 등을 통해 한국대표 참선명상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왔다. (02)451-0203

노덕현 기자



| 현불 논단 |

불교설화로 청소년 포교를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청소년 포교, 불교 당면 과제
어려운 교리로 진입장벽 높아

남방불교 등 '자따까' 활용해
사원서도 부처님 본생담 담긴
부조 · 벽화 쉽게 만날 수 있어
어린이에게 흥미와 감동 전해

韓사찰 위엄있는 불상 · 불화만
설화 활용 벽화 조성 어떨까
청소년 불교 접근 도움될 것

청소년 포교는 오늘날 불교계에 주어진 숙제이자 당면과제다. 사실 불교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종교가 아니다. 한참 뛰어 놀아야할 아이들에게 앉아서 명상을 하라고 가르쳐야 하고, 한하고 싶은 일이 많은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지키기 어려운 5계를 서약하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일전 잘 아는 출판사에게 '어린이를 위한 불교' 란 주제로 책을 한권 써보지 않겠느냐는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 60페이지 정도의 작은 단행본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고 했다. 흔쾌히 승낙하고 책상에 앉아 집필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석달 후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기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는 4성제 8정도 12연기에 대한 교리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개념들은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욕망으로 물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단언하고 있다. 어른들에게도 어려운데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난해하겠는가?

그렇다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와 같은 남방불교에서도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4성제 8정도 12연기를 통해 불교를 만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불교설화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불교와 남방불교는 수없이 많은 설화들에 불교적 색체를 가미하여 생산해왔다. 자따까(Jātaka)로 알려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아와다나(Avadana)로 알려진 부처님 주변 사람들 덕행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우리들에게 본생담으로 익숙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32성인상과 80종호를 갖추고 윤회하는 세계에 마지막으로 태어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과거 생에서 행했던 많은 공덕들을 열거하고 위대함을 찬탄하고 있다. 이때 부처님은 전생에서 동물로도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신으로도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속적 삶과 연결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불교에 대한 흥미와 종교적인 감동을 준다.

인도불교의 사원 유적에서 우리는 쉽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표현한 부조들을 만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 사원들과 네팔의 티베트불교 사원의 벽에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와 함께 자따까와 아와다나 이야기를 표현한 벽화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사찰의 벽에 표현된 자따까를 통해 불교를 만나고 자따까에서 만난 부처님의 선행과 덕행에 감동하며 불자가 되어간다.

한국불교의 명산 대찰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법당 내부 또한 위엄있고 당당하며 기품있는 불상과 불화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불교사원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자따까와 아와다나를 표현한 벽화들은 찾아볼 수 없다. 부처님 일생에서 8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묘사한 팔상도를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팔상도는 사찰의 중심에서는 밀려나 있다.

청소년포교가 시급한 현실에서 불교의 설화전통을 복원하고 사찰의 내 · 외부를 재미있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종교적인 감동을 주는 설화들을 표현한 벽화들로 가득 채우면 어떠할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절에 오기를 즐기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불교설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불자로 커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社 說

봉축행사 한달 연기에 부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회와 봉축행사가 한 달 연기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할 수 없기에 '연기' 라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 윤4월 8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는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연등회와 봉축행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의 발표처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린 불교계의 대승적 결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윤4월 초파일인 5월 30일로, 4월 25일 예정된 연등회를 5월 23일로 일정을 바꿔 개최한다. 나아가 기존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 종단협 소속 1만5000개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를 입재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고 괴로운 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불교가 보여준 용단은 이 같은 대승불교의 정신에 바탕하고 있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긴 만큼 불교계는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도 방심하지 말고, 준비 과정과 모임에서도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하루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5월 30일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병마 극복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

참선지도자協, 간화선 중흥 계기

간화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참선 명상 보급에 앞장 서 온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활동 전개를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3월 12일 서울 참불선원에서 발기인 대회를 연 것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참선수행과 관련 문화의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간화선은 이를 이끌어 주는 선지식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에 협회의 행보가 주목을 받아왔다.

사단법인을 통해 참선지도자협회는 국내 유일의 국가등록 '참선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선승과 명상의학계, 선학자들로부터 검증된 명상법을 이론과 겸비해 가르치는 이를 말한다.

그동안 간화선은 현대사회서 각광받는 명상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발전해오고 있었다. 걷기명상과 좌선의 만남인 2018DMZ세계평화명상대전, 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선아카데미 대강좌와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 2019대한민국 명상포럼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불교는 명상 붐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명상, 응용명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화선을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 지도하기보다는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자 발굴과 육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명상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이 간화선의 종장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실제 수행을 하는 선승들과 각 단체 참선명상지도자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정진문화와 전통수행법을 개발하는 협회의 탄생에 박수를 보낸다.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우리 사회에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

특별기고

국민 화합, 코로나19 치유 백신



법진 스님
보타낙가사 회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서 퍼진 코르나19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하지만, 입원실이 부족하고 병원 자체도 전염 위험성이 있어 자가 격리한 자체 치료법을 권장하는 것 같다. 가택연금 아닌 연금인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라는 훌륭한 재가불자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8천여 사문과 3만 2천 보살들과 성문, 제석천, 범천, 사왕천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인 대중과 함께 계실 때이다.

유마거사가 짐짓 중생들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문수 보살을 통해 문병을 갔다. 하명 받은 문수 보살이 환자를 병문안하기 위해 간다하니 문안을 자청한 8천명의 보살과 오백사문, 모든 대중도 함께 가길 청했다. 그래서 문수 보살은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많은 대중을 어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한참을 생각한 유마거사는 신통으로 병상의 침대와 모든 물건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작은 방을 보살 8천 여 명과 사문 오백 등 동행한 모든 제천의 신들이 다 들어오고도 여유 있게 넉넉히 만들었다.

유마거사는 재가 불자이지만 출가 사문 못지않은 수행 능력으로 신통자재 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부처님 안위를 전하며 "거사님께서는 어찌 편찮으시며, 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 병은 중생들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픈 것이며 병의 근원 자체는 모든 것이 자아의 집착서 온 것입니다" "언제쯤 쾌차하실 것 같습니까" "중생들을 다 제도하여야 낳을 것입니다"

이 유마거사와 문병한 문수보살과의 대화는 우리 중생들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다 같은 동행인이라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유마거사 뿐 아니라 지장보살님 서원도 모든 지옥(고통 받는 중생들)고를 해탈해야 본인도 성불해 등과를 얻을 것이라 서원했으며,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사생육도(四生六道)를 만행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중생과 아픔을 함께하는 대승적 사고방식인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진실로 정성을 다해 괴질로부터 사람을 살리려 한다면 천신이 먼저 감응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코로나 열병이 무섭기는 해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전라도 지방서는 대구 환자들이 병실이 부족하면 전라도 쪽 병원으로 옮겨오라고 하는가 하면, 전염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원 봉사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면 코로나19 또한 화합의 백신이 되어 줄 것이다.

필자는 매일 새벽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절한 약사여래 기도를 한다. 이 시방세계서 코로나 괴질이 깨끗이 사라질때까지 나의 기도는 계속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방역대책 본부와 의료진 및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옥천범음대학
불교의식 특별반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모집인원 : 30명
▣ 전형일자 : 2020년 3월 31일까지
▣ 수 업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 지도교수 : 조현성 스님
▣ 교육과정 : - 도량석·종송·향수해례·삼보통청·사시불공·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상용영반·식당작법 등
- 각종행사 불공의식
- 불상점안·사다라니작법
- 예수재작법
- 사물 및 불교무용(바라, 나비춤, 법고무 등) 심화교육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8~3/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홍창성	운주사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간추린 한국 선 사상사 (선의 전래로 부터 고려시대까지)	정영식	운주사
3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송주 김응철	불교신문사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9	수좌 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5	초기 불교 이해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비나야삐따까 : 율장전서	퇴현 전재성	한국빨리성전협회

책세상

'성장의 길 vs 깨어남의 길' 구분 통합



켄 윌버의 통합명상

켄 윌버 지음/김명권, 김혜옥, 박윤정 옮김

김영사 펴냄/1만 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효과적 명상법과 포괄적 통찰이 결합한 '통합 마음챙김' 안내서

"성장하는 동시에 깨어나라!"

마음챙김 명상의 가장 혁신적인 해석

성장과 깨달음의 두 날개

이 책은 깨어남과 성장의 길을 결합하는 제3의 길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진정한 삶의 길을 모색한다. 이는 5단계의 깨달음에 대한 동양의 가르침과 서구의 인간 발달 8단계 모델을 결합하여, 인간 진화의 완전한 경로를 묘사한 최초의 시스템이다. 이 방식을 통해 일터, 인간관계, 예술 창조, 자녀양육, 새로운 과정의 학습,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수준의 발달과 깨달음과 같은 몰입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켄 윌버는 '성장의 길'을 발달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매슬로, 피아제, 뢰빙거 등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발달 모델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들을 8~9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구축해 온 사회 · 문화적 형태와 정신적 구조를 모두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개인 또는 사회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현대의 다양한 학파들은 거의 모두 이 분류 방식에 합의하고 있다. 이 수준/단계들은 역사적으로나 진화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생겨났다. 하나의 단계가 생겨나 형태를 갖추고 존재하면, 이후의 모든 개개인이 이 단계를 경험했다. 또 인간 존재와 의식의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단계들은 처음에 생겨난 순서 그대로 고고학적 지층을 형성했다.

진화의 8가지 주요 단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단계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간다. 각자의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현상을 보고, 다른 욕구와 충동을 지니고, 다른 가치를 믿는다. 다른 유형의 정체성을 갖고, 정의에 대한 생각과 도덕관념, 진리나 궁극적 실재라고 여기는 것도 다르다. 이 통합적 개괄을 활용하면 자신이 보통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적 개괄을 통해 자신의 단계를 파악한 후에는 마음챙김으로 이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단계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켄 윌버는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5단계의 깨어남의 길'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잠에서 깨어 있는 일상의 거친(gross) 상태' '잠에 얕게 든 정묘한(subtle) 상태' '깊은 잠에 든 원인(causal) 상태' 그리고 '텅 빈 주시(look)의 상태인 투리야(Turiya)'와 '순수한 비이원적 합일 상태인 투리야티타(Turiyatita)'로 구성된다.

이 단계들은 각각 '성장의 길'의 8단계와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두 길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켄 윌버의 목표이다.

성장의 길과는 대조적으로 깨어남의 길들은 모두 4~5가지의 자연스러운 주요 의식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상태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존재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와 꿈의 상태, 꿈 없는 깊은 상태, 텅 빈 주시의 상태, 순수한 비이원이나 합일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들이 명상의 단계들이 되면, 이것들을 흔히 각각 '거친(gross) 상태' '정묘(subtle)한 상태' '깊은 정묘 상태나 원인(causal) 상태' 투리야(turiya), 투리야티타(turiyatita)라고 부른다. 이런 상태들은 힌두교의 베단타 학파와 시바파, 금강승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신플라톤주의나 수피즘, 카발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중지능과 통합 마음챙김 명상

'통합 마음챙김 명상'은 삶의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는 인간에게 십여 개 이상의 '다양한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감성지능, 도덕지능, 대인관계지능, 예술지능, 신체 또는 운동감각지능, 나아가 영성지능 등 지능의 다양한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켄 윌버가 구분한 '성장의 길'과 '깨달음의 길'은 각각의 지능에 적용된다. 각 지능의 '구조'와 '상태'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완성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각 지능의 구조와 상태를 파악하는, 자각과 관찰의 도구로써 '통합 마음챙김 명상'이 사용된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지지능(cognitive intelligence)이라는 한 가지 지능만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IQ 검사로 인지지능을 측정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실제로 십여 개 이상의 다양한 다중지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실제로 인지지능 외에도 감성지능과 도덕지능,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 심미적 혹은 예술적 지능, 신체적 또는 운동감각 지능 등을 갖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그 만큼 다양한 다중지능 혹은 발달 라인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라인들 모두 앞에서 개괄한 6~8개의 주요 발달 단계들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한다. 같은 단계들에서도 다양한 라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지능들은 진정한 자기와 지고의 정체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 혹은 발달 라인이나 흐름이다. 마음챙김 수행의 통합적 측면은 라인들을 발견하고 일깨우고 활성화시켜서 이것들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해준다. 그래서 마음챙김 수행을 계속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요 라인들의 수준이 최대한 높고 완전하게 발달한다. 이로써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범위와 빛도 점점 커진다.

'통합 마음챙김 명상'은 '성장의 길'에서 밝혀진 의식의 구조를 척도로 삼아, '깨어남의 길'의 방법론인 마음챙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발달 단계와 다중지능이 대체 어느 수준과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입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켄 윌버는 매슬로, 피아제, 오로빈도, 그레이브스, 뢰빙거 등이 연구한 다양한 발달 이론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통합심리도'를 제공하여 독자 스스로 자신의 통합심리도를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전체 지도에서 내가 현재 어디쯤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만나게 한다. 자신의 '의식의 구조'와 함께 '의식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켄 윌버는 인류 정신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혁신적인 '통합이론(Integral Theory)'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수행자이다. 켄 윌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가 쌓아 놓은 보편적 지혜와 첨단 과학지식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의료 등 실로 생활 곳곳에서 자신의 통합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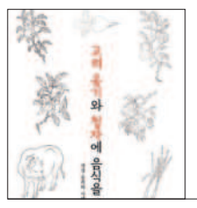
▲저자 켄 윌버는?

23세에 쓴 첫 저서 〈의식의 스펙트럼〉은 인간의식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은 책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2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심리학과 철학, 인류학, 동서양의 신비사상,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총망라하여 인간 의식의 발달과 진화에 대한 통합이론을 제시했고, 이러한 업적은 프로이트나 융, 윌리엄 제임스의 업적에 비견되기도 한다.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수행자이기도 한 그는 통합이론과 수행법을 연구하는 통합연구소(Integral Institute)를 설립 및 주도한다.

저서로는 〈켄 윌버의 통합비전〉 〈모든 것의 역사〉 〈의식의 스펙트럼〉 〈무경계〉 〈에덴을 넘어〉 〈아이 투 아이〉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켄 윌버의 일기〉 〈모든 것의 이론〉 〈성, 생태, 영성〉 〈켄 윌버, 진실 없는 진실의 시대〉 〈내일의 종교(근간)〉 등이 있다.



불교 음식, 우리 음식 원형



고려 옹기와 청자에 음식을 담다

태경 지음/ 양사재 펴냄/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음식문화 기초자료 목적
불교음식 우리음식 원형 형성
고려 개경 승려 · 사부대 음식
고려와 송대 음식 교류 조명

먹방, 쿡방, 음식의 개념은 이제 '먹는 것' 과 더불어 '보는 것', '느끼는 것' 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 담긴 이유와 근거들은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

한식과 사찰음식(또는 불교음식)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변용되었는가를 인문학을 바탕으로 살펴본 신간 〈고려 옹기와 청자에 음식을 담다〉는 고려시대 개경 지역의 승려와 사대부의 음식문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음식에 깃든 내력을 좇는다.

우리 음식문화의 기초 자료에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은 먼저 송나라에서 유행한 음식문화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시대의 문집, 사료, 저술 등에서 음식을 언급하는 시(詩)와 기사 등을 통해 신라와 조선을 잇는 고려시대의 음식문화를 살펴본다.

다음은 동양의 맛이론과 불교에서 음식을 주제로 한 여러 견해들을 모았다. 그리고 기초 자료에서 발견한 음식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불교음식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바다에서 나온 실제 유물을 통해 개경의 먹거리 재료도 함께 정리했다.

"음식문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또 다른 음식문화는 사료에 보이는 신라와 고려사회에서 베풀어졌던 다양한 제사음식이다. 제사의식에는 격식과 상징을 갖춘 음식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 유교의 제사음식, 도교의 조체 음식, 불교의 헌공 공양물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고유음식' 과 절의 음식 '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음식생활 속에서 문화로 전승되어 왔을까?"

책은 우리 밥상의 원형을 고려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고려 음식문화의 뿌리를 불교에서 찾는다. 책은 총 4개의 장에서 우리 음식의 내력을 정리한다.

△총론에서는 한식의 원형을 찾는다.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시작한다. 신라와 고려사회에서 있어왔던 다양한 제사의식에서 그 원형의 일부를 들여다본다.

"불교의례 속에 있던 음식물들은 점차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가 있는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음식의 역사를 찾아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곧 불교음식의 기원인 동시에 살아 있는 한식의 기원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돈황 막고굴 236호 굴재승도 그림(선을따라 모사한 그림). 출처 〈당오 대돈황 음식문화연구〉(2004)204쪽

'전통음식문화의 기초를 놓은 불교음식' 에서는 불교음식을 한식의 기원으로 소개한다.

△제1부 '음식을 먹다' 에서는 '고려사', '동국이상집' 등 음식 이야기가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우리 음식의 원형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그 중 '사찰음식에서의 오신채와 육식' 에서는 오신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윤리관에 많은 영향을 준 〈범망경〉에서는 대산, 혁총, 자총, 난총, 흥거로 적고 있다. 〈중략〉 대산은 호릉으로도 불리며 집에서 나는 달래이다. 혁총은 염교, 산마늘, 껍질이 있는 산마늘 등이다. 자총은 파, 호총, 춘총 등이다. 난총은 양파, 작은 달래로 야생이다. 흥거는 식질, 예대, 배로자, 아위약, 긍거로라고도 한다. 이 흥거는 중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많다."

△제2부 '음식을 읽다' 에서는 고려 음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송의 먹거리와 개경 문인의 먹거리 그리고 역사 속의 음식들을 소개한다.

'송 개봉의 먹거리' 에서는 고려와 송의 음식교류를 살핀다. 고려인들이 중국에서 과연 어떤 음식들을 접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사절단으로 송에 갔을 때 참석한 연회 장소에서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동경몽화록〉에서 찾았다. 또 중국의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소채류들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며 그 이름은 무엇인지를 〈본심재소식보〉에서 본다.

'개경 문인의 먹거리' 에서는 개경 사대부들의 시집과 사료에서 음식관련 내용을 뽑았다. 최자의 〈보한집〉에서는 승려의 시를 비평한다. 가장 좋은 시를 소순기라고 하여, 소채에 비유한다.

'승려의 음식 이야기' 에서는 혜심 스님의 〈진정국사어록보유〉, 〈무의자시집〉과 천책 스님의 〈호산록〉에서 음식에 관련된 시를 발췌했다. 식재료, 음식 이름, 채소류, 과실류 등이 중심이다.

△제3부 '음식을 이야기하다' 에서는 '미론(味論)' 을 다룬 이론들을 소개한다.

'동양의 맛이론' 에서는 동양 최초의 맛이론인 오미를 〈여씨춘추〉에서, 약식동원의 근거로 오미론을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학서 〈황제소문영추경〉에서, 수나라 말기에 당시 유행했던 오행 미론의 집대성을 〈오행대의〉에서, 일상생활에서 음식관을 공자 〈논어〉 향당 편에서 발췌 수록했다.

'불교음식의 이론' 에서는 대승불교에서 불교음식을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전과 논서에서 내용을 뽑았다.

저자 태경 스님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경영학과(MBA, 경영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계율) 및 박사(한국화엄, 균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 종단교수사리와 포교원 의례위원회 의례실무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초기화엄사상사〉 등의 저서가 있다.

인류 미래 인공지능도 '無我'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조애너 메이시 지음/ 이중표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2만2천원

오늘날의 일반시스템이론과 2600년 전에 탄생한 불교의 사상체계를 통해 자연시스템의 법칙(Dharma)을 설명한다.

신간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탄생케 한 시스템이론과 인공두뇌학의 기원을 불교의 연기법과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시스템을 설명한다.

인공 지능의 개념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됐고, 인공지능에 영향을 끼친 시스템이론은 유럽 중세시대에 태동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스템이론과 너무도 흡사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2600년 전 탄생한 佛法의 요체 '연기법' 이다.

책은 두 영역에서 공통점을 찾아 하나로 엮어낸다. 이러한 상호해석을 통해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 · 생태 · 윤리 등에 관한 철학적 토대와 도덕적 근거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 일상 속에 와 있었다. 밝은 미래와 암울한 미래의 엇갈린 시선이 공존하지만 인공지능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얼마 전 알파고의 등장과 그 성과는 인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밝은 미래' 와 '암울한 미래' 사이에 서있는 인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층적 실재관과 단일 방향적 '인과' 패러다임으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사실 불교와 시스템이론은 물질계가 이미 마음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또는 그것들이 분리할 수 없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시각이 인간의 의식을 구원하고 폭넓게 한다는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책은 일반시스템 이론과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두 사상 체계를 활용해서 상호인과율의 특성을 밝히고 자연시스템의 법칙(Dharma)을 설명한다.

생태철학자이자 불교학에도 조예가 깊은 저자 조애너 메이시는 기원과 목적이 너무나도 다른 불교의 연기법과 현대의 시스템이론이 상호해석 가능하며, 이를 통해 두 사상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상을 연결하는 고리는 '상호인과율' 이다. 상호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며 원인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순환적 인과관계, 또는 호혜적 인과관계, 상호적 인과관계, 상호결정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일반 시스템이론이 바로 이 상호인과율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상호인과율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불교의 '연기법' 과 닮아 있는 것이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본다"고 경전이 전하는 것처럼, '연기' 는 붓다가 깨달은 실체 그 자체이다. 연기법 안에서 실재는 역동적인 상호의존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현상은 불변하는 본질 없이 신체적, 정신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무아' 이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자연 시스템 법칙' 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상호작용 속에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 인간처럼 사유하고 판단하게 되더라도 결국 '무아' 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저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연 시스템에서도 고정불변의 속성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상호인과율로 통칭되는 이 이론에서, 인간 개개인이 그 상호발생적 패턴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인간 의식의 구원은 물론 미래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와 현대과학 이론을 융합하여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은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책은 현대의 시스템과 불교가 그 기원과 목적이 명백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해석이 가능하고, 상보적인 해석을 통해 두 사상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보적인 해석을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원리들이 드러나며, 그것들이 우리 시대에 출현한 생태학적 세계관의 철학적 토대와 윤리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 책의 요지다. 박재완 기자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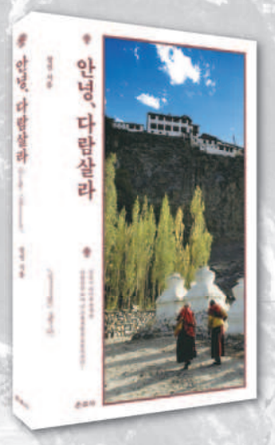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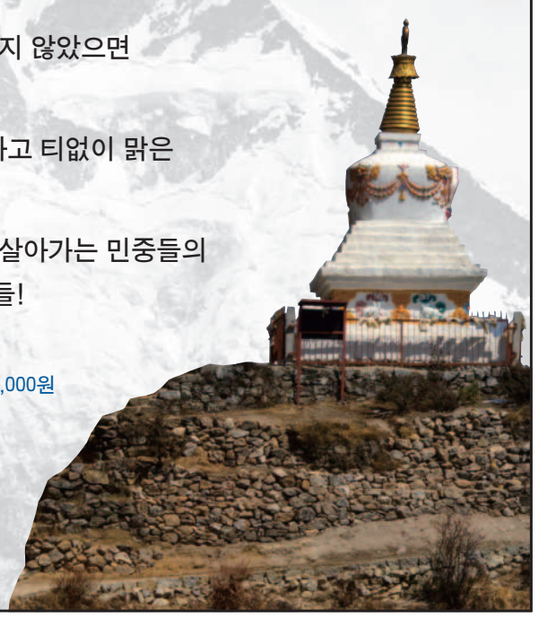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韓中日불교 '화엄학'으로 통하다

주목! 학술서- 이시이 코세이의 〈화엄사상의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가 화엄교학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전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라 화엄학'이 미친 지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서가 발간됐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 교수의 〈화엄사상의 연구〉가 최근 우리말로 번역돼 발간됐다. 번역은 김천학 동국대 HK교수가 맡았다.

화엄교학은 천태교학과 함께 중국불교의 이론을 대표하는 교학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화엄교학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며, 그 영향력은 지역을 넘어 현대 사상계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화엄교학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사종법계설을 비롯한 전통적인 교학에 근거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종법계설에 의한 구분이 정착되기 이전 화엄교학의 본래의 모습이나 화엄교학의 성립 사정 자체를 해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시이 교수의 〈화엄사상의 연구〉는 동아시아 화엄교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조망하고, 의상과 원효 등 신라의 승려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신라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동아시아 불교사의 지형을 새로 그리는 등 화엄사상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입당하여 화엄종 2대 조사 지엄에게 사사하고, 동문의 후배인 법장 스님과 친교를 거듭했던 의상 스님이나, 또 신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원효 스님이 중국의 법장 스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단적인 예다. 이는 화엄교학이 당시 동아시아 사상 교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책에서 주목할 점도 이 부분이다. 이시이 교수는 신라불교를 하나의 조그마한 흐름으로 인식했던 종래 학자들의 연구와 달리 매우 역동적인 흐름의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 저자는 〈화엄사상의 연구〉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원효, 의상 스님의 화엄사상에 대해 폭 넓게 기술한다.

저자는 제3장 '신라의 화엄사상'에서 의상에게 영향을 미친 지론교학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원효 화쟁의 근거를 찾았다. 특히 원효 저술의 저작 순서를 추정한 것은 원효 사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화엄학 전개 조망
원효 · 의상 등 신라승려 연구
〈석마하연론〉 신라성립 주장
화엄 통한 교류사 확인 의미

의상의 '법계도'의 배치는 독특하지만, 그 구성에는 중국 시적(詩的) 연원이 있다는 사실과 이이상즉설(理理相卽說) 역시 초기 중국불교와 지엄에게 그 사상적 연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중국 화엄종 3대 조사인 법장의 화엄사상이 지엄과 의상, 원효의 사상적 영향 하에 구성됐으며, 신라 위찬설이 주장됐던 〈석마하연론〉에 대해 '신라성립설'을 주장하고 있다. 제5장은 앞선 주장들을 심화해 〈석마하연론〉의 성립 배경을 고찰하며 원효, 의상, 법장의 영향을 확인했다.

이시이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지론종의 화엄 관련 문헌에 주목하였고, 그것이 의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 덕분에 법장 작(作)으로 전해져 왔던 〈화엄경문답〉은 의상과 제자의 문답임을 지적할 수 있었다"면서 "원효 저작의 성립 순서를 추정한 것은 본서에 정리한 논문이 최초일 것이다. 〈석마하연론〉이 신라 성립임을 논증하는 등 한국불교 연구에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역자인 김천학 교수는 "이시이 교수는 중국과 신라, 신라와 중국 간의 상호 사상적 교류를 거쳐 일본의 초기 화엄이 성립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국과 신라불교의 상호 영향 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신라에서 일본으로의 불교사상적 영향과 일본적 수용의 특성을 밝혀야 하는 사상사 · 인문학적 과제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흥전리사지 탑비 주인공은 '신라 고승'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탑비 조각 중 7점을 접합한 모습. 이를 통해 측면 조각의 자세한 모양과 탑비 주인공이 귀족 출신 김 씨 성을 가진 스님으로 확인됐다.

통일신라시대 대찰(大刹)로 추정되는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탑비의 비편 일부를 접합하는 연구가 최근 진행됐다. 그 결과 탑비의 주인공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왔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고승의 탑비를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흥전리사지 비석 조각은 홍영호로부터 기증받은 비석 조각과 불교문화재연구소,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비석 조각 등 현재까지 16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독립된 비편들을 해석 · 판독해왔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중 14점을 한자리에 모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7점과 2점이 서로 접합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사된 14점의 비편이 3종의 다른 비석들과 혼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춘천박물관에 따르면 7점의 조각이 접합되는 고승 탑비의 경우 양 측면에 고부조의 조각장식이 있었다. 이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유사한 양식으로 그 형태가 화려하다. 다른 2점은 탑비와 표면마감, 서체와 자간 등이 고승 탑비와 달랐으며, 나머지 1점은 서체와 자간도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모두 세 종류의 비석이 혼재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립춘천博 비편 접합 조사
9점 접합… 세 종류 혼재돼
등장인물 김 씨 '和尙' 연결
귀족 출신 승려임이 확인돼
향후 특별전시서 결과 공개

또한 고승 비편으로 막연히 추정되던 고승 비편의 주인공이 확실히 확인됐다. 그간 고승 비편은 계림 출신 신라 귀족 김 모 씨가 주인공으로 추정됐지만, 접합 조사 결과 스님을 의미하는 '화상(和尙)'과 연결됐다. 이에 따라 탑비의 주인공은 귀족 출신 김 씨 성을 가진 스님임이 확인됐다.

접합 조사를 통해 탑비 측면 조각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석조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립춘천박물관의 비편 접합 조사는 최근 10년간의 주요 발굴 성과를 전시하기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향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관 중인 비편 2점을 마저 인수하면 관련 연구를 더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번 조사 사례는 따로 조사되고 보관된 발굴품의 통합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연구 기관 간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3월 24일부터 일반 공개되는 특별전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에서 접합된 비석 조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월 5일까지 휴관이 연장됨에 따라 전시도 연기됐다.

신성민 기자

박물관 못 간다면 '온라인 관람'을

국립중앙博,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관 개관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물관 등이 전면 휴관에 들어간 가운데 온라인 관람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휴관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o.kr)를 접속하면 초기화면에서 VR과 동영상으로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실제 최근 종료된 '가야본성 칼과 현' 특별전의 경우 전시실 모습 그대로 VR로 재현해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유물들을 선택하면 간단한 설명들도 제공된다.

동영상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개최된 '공주 마곡사 괘불전'을 박물관 학예사들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새롭게 단장한 불교회화실의 불화들도 온라인으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열린 '대고려전'의 영상도 제공돼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온라인을 통해 박물관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기길 바란다"면서 "박물관 외부의 석조유물정원은 개방하고 있으니 직접 관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메인 화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국가 전면 지원

문화재청 시행령 개정… 17일부터 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월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초석을 놓았다. 향후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3월 열린논단' 취소

진정 국면까지 연기

불교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이 주최하는 열린논단 모임이 2월에 이어 3월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고 전국 사찰은 법회를 중단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열린논단은 지난달에 이어 3월 모임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순례자 급감에 관광산업 '초토화'

印 비하르주, 코로나19에 경제 타격 커져

박영빈 객원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외 불교 성지순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월 12일 인도의 '다운 투 어스'는 코로나19 여파로 불교 성지 밀집지역인 비하르주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인도의 비하르주는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를 비롯해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유적 등의 불교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비하르주 관광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비하르를 방문한 약 3500만 명 중 100만 명이 외국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한국, 중국 등 불교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비하르에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성지순례에 악영향이 미치면서, 비하르주의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주 3월 11일, 미얀마 양곤을 출발하여 가야를 거쳐 델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단 한 사람의 승객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야공항은 성도성지 부다가야에서 5㎞가량 떨어져 있어 성지순례의 관문으로 손꼽히는 공항이다.

딜립 쿠마르 가야공항 이사는 "양곤에서 가야로 향하는 비행기에는 단지 13명의 승무원만이 탑승했다. 반면 델리에서 양곤을 향하는 비행기엔 120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나, 아무도 가야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마르 이사는 "일 평균 400여 명의 외국인이 가야공항에 내렸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평균 50여 명 남짓의 승객만이 이동한다"고 전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불교국가 중심으로 성지순례
코로나19로 입국 관광객 줄어
승객 없는 비행기 운행 잦아



부처님의 성도성지 부다가야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과 보리수.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비하르주 불교성지순례 투어를 운영하는 현지의 한 여행사는 "불교순례를 예약한 모든 순례그룹들이 예약을 취소했다. 여행사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고 전했다. 여행사 측은 "최근 인도 전역에서 발생한 시민권 수정법 항의 시위가 부다가야에서도 발생해 성지순례자가 감소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감했다. 관광산업이 초토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다가야에 상주하는 한 일본인 승려는 "봄과 여름이 본래 순례 비수기이긴 하나,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껏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현재 부다가야의 모든 법회와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상주하던 외국인 스님들 가운데에서 자국으로 돌아간 스님들도 많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비하르주는 보건국은 "지난 1월 15일 이후로 주정부 주관의 코로나19 검역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하르주에는 보건 헬프라인 전화를 24시간 대응체계로 돌렸으며, 부다가야 인근 파트나시에 4개의 대학병원과 2개의 민간병원이 코로나19 격리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국은 "현재 관광객들이 모이는 불교성지와 유적지들은 집중적으로 검역과 감시중이다.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주민이나 순례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비하르주에서는 총 144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자가격리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기네스북 등재된 '달마 차크라'

최대 조형물, 직경 9.2m · 무게 약 6톤 규모

인도 하야나주(州) 야무나나가르 지역 토프라 칼란(Topra Kalan) 마을에 설치된 '달마 차크라(법륜 · 法輪)'가 인도판 기네스북인 '림카 북 오브 레코드(Limca Book of Records)'에 등재됐다. 인도 최대 규모의 달마 차크라 조형물로 인증된 것이다.

트리뷴인디아(the tribune india)의 지난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 달마 차크라는 직경 약 9.2m에 무게 약 6톤 규모다. 바퀴살은 무려 20개로 구성됐다. 일반 불상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는 황금색으로 칠해졌다.

해당 매체는 "NGO 단체인 불교포럼(Buddhist Forum)에 의해 지어진 이 조형물은 건축 기간만 240여 일이 걸렸다. 지난해 비로소 완성됐다"며 "아쇼카 천황 시대 당시 하리아나(Haryana)주(州)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조형물은 인도의 잃어버린 불교 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축됐다. 불교포럼의 사무총장이자 영화 제작자인 시다르타 가우리(Sidhartha Gauri)는 인도 고대 제국이었던 마우리아 왕조 시대 마을에 아쇼카 칙령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조형물은 공원 조성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이로 인해 달마 차크라는 지역에서 '아쇼카 차크라'로도 불린다.



인도판 기네스북인 '림카 북 오브 레코드'에 등재된 하야나주 토프라 칼란 마을의 달마 차크라. 사진출처=트리뷴인디아

시다르타 가우리는 "현재 토프라 칼란 마을은 고대 마우리아 왕조 시대의 중심지 위에 세워졌다. 도자기 등 당시 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르샨 랄 재인(Darshan Lal Jain) 불교포럼 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프라 칼란 마을은 정돈되지 않은 마을이었다"며 "이번 림카북 등재를 계기로 문화유산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코로나19, 아이들 돌봐주는 사찰들

日 임시휴교 기간 길어져
사찰 공부 · 놀이방 마련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교로 아이 혼자 집을 지키는 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일본에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던 공공기관들이 대거 폐쇄된 까닭이다. 이에 일본 각지의 사찰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찰을 개방하고 나섰다. 3월 10일 일본의 '일본 뉴스 네트워크'와 '교토방송'은 아이들을 위해 개방한 사찰들을 보도했다.

시즈오카시에 소재한 이치죠지(一乘寺)는 임시휴교로 인해 집에 홀로 남은 아이들을 돕고자 본당을 개방했다. 이치죠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본당의 한 편에 공부방과 놀이방을 개설, 지역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사찰을 놀이방과 공부방으로 개방한 이치죠지. 사진출처=일본 뉴스 네트워크

이치죠지 주지 탄바 스겐 스님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모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길 바라며 사찰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치죠지에서는 대중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학교나 보육기관의 시간에 맞춰 오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점심에는 사찰과 뜻을 함께하는 제과점이 아이들이 먹을 빵과 간식을 제공한다.

사찰에 아이를 맡긴 한 학부모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기도 하고, 나도 일을 쉬며 아이를 돌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가 많았다. 사찰 측에서 먼저 나서서 아이들이 모일 장소를 만들어주니 너무나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찰에 모인 아이들도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스님과의 대화나 사찰에서의 놀이에 흥미를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한 남아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심심했다. 하지만 절에 오면 친구들도 있고 신기한 것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치죠지 측은 "학교들의 휴교상황에 따라 개방 시기를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교토시에 소재한 쵸라쿠지(長樂寺)는 아이들을 위해 도량을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기획했다. 체험학습의 내용은 전통놀이와 사경 등 불교문화와 관련한 활동. 평소에는 체험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평소에 제한된 몸과 마음을 움직이자는 취지다.

쵸라쿠지 주지 마키노 쥰잔 스님은 "특히 사경 체험시간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경하자고 강조한다"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발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서 무슬림 반군 폭탄테러

얄라 지역 지방 정부기관 앞에서 2차례 걸쳐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무슬림 반군들에 의한 폭탄 테러 사고가 발생했다.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월 17일(현지시간) 태국 얄라 지역의 지방정부기관 SBPAC(Southern Border Provinces Administrative Center) 앞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 반군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번 폭탄 테러는 총 2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태국 남부의 얄라(Yala)주(州)다. 태국은 인구의 약 95%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지만, 얄라 · 나라티왓 · 빠따니 등 남부 3개 주 등은 과거 술탄이 다스리던 빠따니 왕국의 영토였던 탓에 무슬림이 많다. 빠따니 왕국이 태국의 전신인 옛 시암 왕국에 병합되면서 자연스럽게 태국 땅이 됐지만, 여전히 무슬림 반군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무슬림 반군들의 테러로 인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0명이 사망했다.

폭탄 테러 발생 당시 SBPAC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첫 번째 테러에서 SBPAC 건물 울타리 바깥에서 수류탄 투하가 있었다"며 "여기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2차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이미 청사 울타리 근처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폭탄테러가 발생한 태국 얄라지역 지방정부 앞. 사건 현장을 당국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출처=KFGO

이로 인해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부상자에는 언론인 5명, 경찰 5명, 군인 2명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0년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공모
접수 : 2020.4.20 ~ 5.15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불자인 개인 또는 단체)
① 개인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금액
① 개인 : 중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300만원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선정된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 50만원 별도 지원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추천인 사인 포함)
* 개인 : 중 · 고등학생은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생 · 대학원생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단체 : 초 · 중 · 고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 · 대학원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
- 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15일(금)까지
- 방법 : 우편(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함.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6월 초(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2020년
불교 학술 및 콘텐츠 공모
접수 : 2020.4.20 ~ 5.15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단체)를 대상으로 불교 학술 및 콘텐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 :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분야
① 불교 학술(저서 · 번역서)
② 불교 콘텐츠(만화 · 동화 · 소설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 저서는 200자 원고지 1,200매 이상, 번역서와 만화 · 동화 · 소설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위 지원 분야 중 1개에 대해 제시 주제와 자유 주제 중 선택 지원)
1) 제시 주제
① 젊은이들의 종교 의식 변화 트렌드 연구 분석(메타 연구 포함)
② 현대 심리학의 접목을 통해 대중화할 수 있는 불교 수행 프로그램
③ 한국 청소년들의 정서 건강과 학업에 도움이 되는 명상 방법
④ 불교의 생명 존중과 환경
2) 자유 주제 :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 지원금 : 1주제당 500만원 ~ 1,50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제안서(A4 1p 분량)
2) 심사 절차
1단계(제안서 예비 심사) → 2단계(1단계 통과자, 계획서 발표 평가) → 3단계(종합 심사) → 4단계(대상자 선정)
3) 지원금 선정자는 연구비를 수령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4) 접수
- 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15일(금)까지
- 방법 : 이메일(kbpf2606@daum.net)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6월 초(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지장시왕도(둔황, 10세기)


영국박물관 소장 지장보살과 시왕(둔황, 10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장보살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지장보살과 삽살개 함께 있는 이유는?



이상근의
聖寶流轉

⑥ 지장보살도와 삽살개

사찰에서 가장 복잡한 전각 중 하나가 '명부전(冥府殿)' 이다.

지장보살의 협시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다. 다시 그 좌우에 열 분의 시왕이 있고 시왕 사이사이에는 시봉을 드는 동자가 또 열 명 배치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시왕을 대신하여 심판을 하는 판관 2명, 기록과 문서를 담당하는 녹사 2명이 있고 문의 입구에는 장군 2명이 마주보고 지키고 섰다. 시대에 따라 도교의 장군상이 금강역사상으로 교체된다. 모두 29체의 존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인을 잡아다 대령하는 졸리(卒吏)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31체다.

물론 모든 사찰의 명부전이 이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명부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장전처럼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그리고 무독귀왕만 모시고 있는 사찰도 많다. 또 시왕 옆의 동자는 생략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시왕과 두 번째 시왕 옆에는 동자가 없어 동자가 총 여덟 명 모셔진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찰 거개가 그렇듯이 역사나 습합 또는 우여곡절로 모셔진 존상이나 위치가 제각각이다.

명부전, 왜 복잡해졌을까?

우리나라에서 명부전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건 고려 말을 넘어서 조선시대 들어와서다. 엄밀히 얘기하면 명부전이 복잡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명부전이 사찰에 들어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명부전은 두 전각이 합쳐진 '통합 전각' 이다. 바로 지장전과 시왕전이다. 지장전에 모셨던 불상과 시왕들이 하나의 전각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전각이 복잡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의 시대였고 재정 역시 넉넉하지 않았다. 있던 전각도 없애야 할 판이었는데 새로 지어서 그 수를 더 늘릴 수가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일정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지장전과 시왕전이 합쳐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전각을 짓지 않을 수도 없었다.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쟁과 대기근이 징검다리처럼 지나간 자리에는 제 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명복' 을 비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헷갈리는 시왕의 배치

중국에서 지장신앙이 대유행 한 건 7세기부터로 알려져 있다. 정권 교체가 잦았던 시기에 정토신앙과 연계돼 몇 차례 대유행을 한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명한 지장보살도들은 10~11세기의 것들이 많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흥미로운 역사를 하나 짚어보자.

먼저,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에 있는 〈지장시왕도〉다. 부처님 좌우에 책상을 앞에 두고 시왕들이 앉아 있다. 부처님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① 진광왕(秦廣王) ② 초강왕(初江王) ③ 송제왕(宋帝王) ④ 오관왕(五官王) ⑤ 염라왕(閻羅王) ⑥ 변성왕(變成王) ⑦ 태산왕(泰山王) ⑧ 평등왕(平等王) ⑨ 도시왕(都市王) ⑩ 전륜왕(轉輪王) 순이다.

망자는 49일까지 7일 단위로 전생에 지를 죄를 심판받게 되고(①~⑦) 또 100일 되는 날, 그리고 소상과 대상에 각각 평등왕(⑧)과 도시왕(⑨) 그리고 전륜왕(⑩)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10세기 둔황에서 발굴돼 지금은 영국박물관에 있는 〈지장보살과 시왕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메박물관 소장의 〈지장시왕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느낀 독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전각이나 불화의 시왕 배치와 다르다. 우리는 지장보살의 왼편으로 ①→ ③→ ⑤→ ⑦→ ⑨, 지장보살의 오른쪽으로 ②→ ④→ ⑥→ ⑧→ ⑩ 의 순서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비슷해서 알기 어렵다거나 헷갈리는 경우는 ⑤염라왕을 찾으면 된다. 염라왕은 장신구나 가지고 있는 도구(?)가 다르다. 하나는 책 모양의 관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이다. 망자의 잘못을 일일이 적어놓은 책이라고도 하고 혹은 〈금강경〉이라고도 한다. 여하튼 책 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 이는 기메박물관 소장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망자를 업경대에 비춰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국박물관 소장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분이 지장보살의 왼쪽을 기준으로 세 번째에 있는지 다섯 번째에 있는지에 따라 시왕을 시계방향으로 배치했는지, 좌우로 배치했는지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조선 시대 〈지장시왕도〉를 보면 머리에 책을 쓴 염라왕이 부처님의 왼쪽 세 번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1번에서 10번 시왕이 시계 방향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지장보살의 좌측은 홀수로 우측은 짝수로 배치된 걸 알 수 있다.

지장전 · 시왕전 합쳐진 '명부전'
민중들 명복 비는 공간 절실

지장보살 · 시왕 배치가 일반적
도상 '금모사자' 한국 삽살개
지장보살의 화신 김교각 스님
中유학에 데려간 것이 기원돼

사자가 아니라 삽살개

그런데 시왕의 배치만큼이나 더 이상한 게 하나 있다. 기메박물관 소장 그림이나 영국박물관 소장 그림 옆에 이상한 동물이 하나 앉아 있다. 불교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이를 두고 '금모사자(金毛獅子)' 라고 한다. '금색털을 가진 사자'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동물은 '사자' 가 아니라 '개' 다. 그것도 우리나라 경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삽살개다. 지장시왕도에, 그것도 왜 중국에서 그려진 그림에 삽살개가 있을까?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다.

그림 속 지장보살은 신라의 왕자이기도 했던 실존 인물 김교각 스님이다. 스님의 법명이 '지장' 이었고 중국에서는 이분을 '지장보살' 혹은 지장보살의 '화신' 으로 인식하고 있다. 10세기 이후에 그린 불화의 지장보살은 모두 김교각 스님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가지고 간 여러 물건이 있다. 오차송이라는 소나무 종자, 황립도라는 볍씨, 금지차라는 신라차, 그리고 흰 삽살개 한 마리다. 이 개는 선청(善聽 혹은 체청諦廳)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개는 김교각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충실히 스님을 따르고 지켰다고 한다. 그래서 9세기 이후 중국에서 그려진 지장보살도에는 대개 이 선 청이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

고려 말~조선 초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지장보살도에도 분명히 개의 모습이 등장한다.

귀신 쫓는 삽살개

그런데 왜 삽살개였을까? 삽살개는 진돗개, 풍산개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토종견이다. 옛날 사람들은 개가 액(厄)을 막고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김교각 스님이 자신의 애견을 데려 간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장보살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밖에도 민간에서는 삽살개 근처에는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고 믿어왔다. 또 삽살개는 얼핏보면 어수룩해 보이지만 주인에게 몹시 충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특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이제는 그림 속의 동물이 사자가 아니라 '삽살개' 라는 것을 아는 불자들도 많다.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중국 성지순례가 활성화 되면서 지장성지인 구화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곳 박물관에 관람하면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림에 함께 있는 것이 '개' 라고 분명히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교미술사를 강의하거나 저술한 '교수님' 들 중에는 아직도 굳이 '사자'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개' 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심지어 한발 더 나가 '문수보살의 화신' 이라는 설명이 붙은 곳도 있다. 아마 사자를 타고 다닌 문수보살에서 착안한 모양인데 '남대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고 떠들고 다니는 격이다.

그래도 얼마 전부터는 양심에 찔렸는지 슬슬 '사자 모양의 개' 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 알긴 알지만 스승의 설명을 정면에서 거스를 수 없으니 말을 꼬아놓은 것이다.

이런 '역사' 를 모르다 보니 그리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문제를 하나도 안 풀면 '나는 틀린 게 없다' 고 주장할 수 있는 법. 시왕도에 아예 사자든 삽살개든 그리지 않는 형식이 오래 계속됐다. 조선시대 〈지장시왕도〉에는 아예 개든 사자든 그려놓은 걸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김교각 스님을 그려넣은 게 아니라 경전 속의 지장보살을 그려넣은 것이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수업 3개월과정(57기) 교육자료 배부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수업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4월 2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통신교육 기간내에 전화 질의 상담으로 교수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내 염불을 신명으로 채우려면!

실패 염불시설의 원인 100% ! 비교가 없었음! 오직 비교! 귀 법당에서 본사의 견본과 소리비교의 순간! 장난감! 수준 차이를 실감하신 후! 견본으로 염불시 내 소리가 지극히 편안하고 염불테크닉이 오묘하게 살아서 신명으로 차 오를때! 귀 법당 시설의 절반가에 시설상담 현장 비교시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 망신?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본 제품으로 사용으로 오는 자신감 : (1) 각종 제 성공 자신감! (2) 염불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 자신감! (3) 잘되는 염불로 사찰 중흥 자신감!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고장없음 /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 시설 방문인은 서울태생 발성법의 명인으로 방문시 배우는 자세만큼 : 목이 안쉬는법, 성대 강화, 성대 스트레칭, 발음, 발성, 음폭, 음량, 고저, 강약, 전화상담시 교정 조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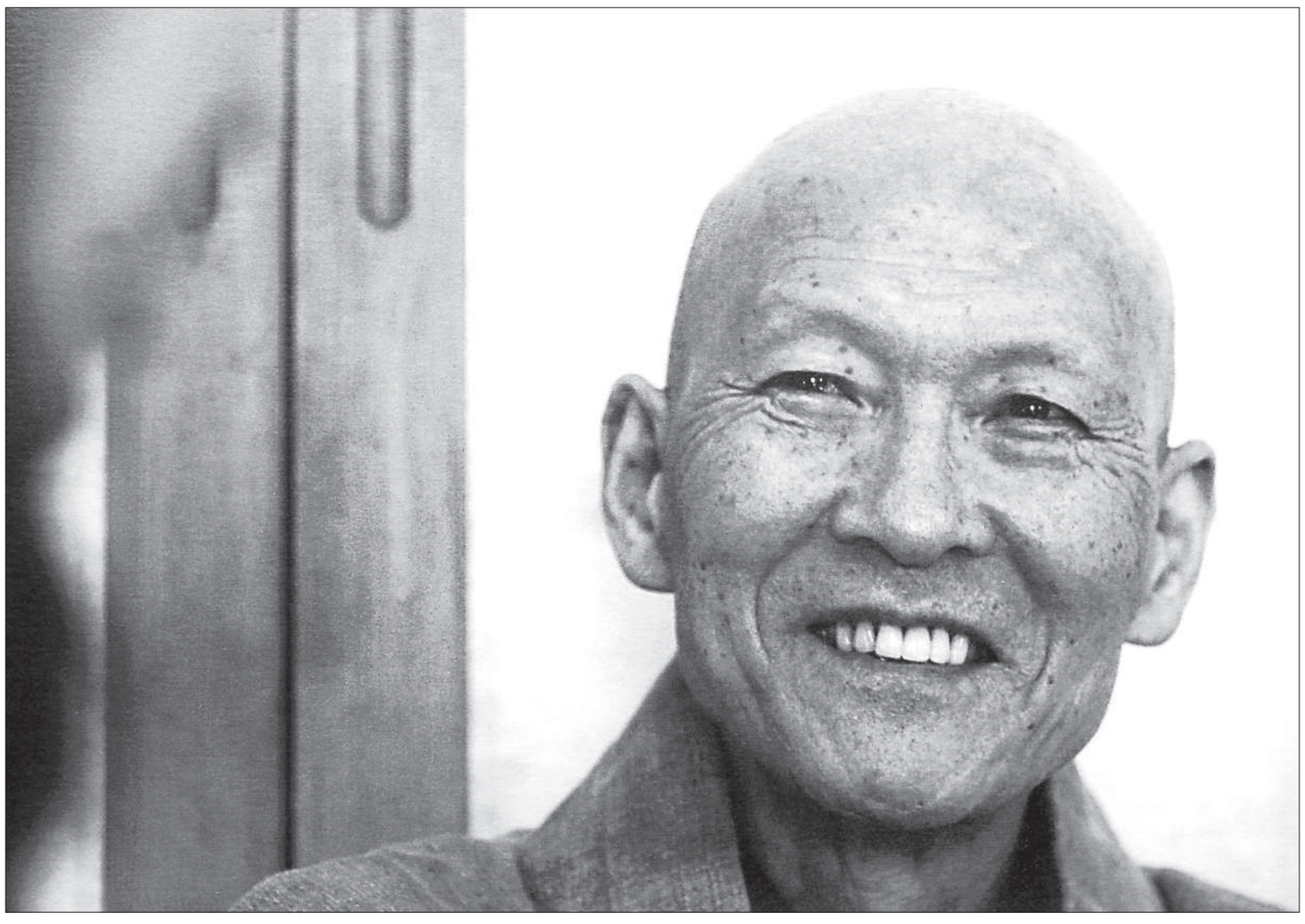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소리상담 환영**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열린 시선, 종교를 넉넉히 한다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⑥ 법정스님의 종교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수선한데 종교가 거들고 있어 한 걱정들이다. 확진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 코로나가 잦아들 때까지 종교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도 예배 멈추지 않은 교회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정 스님은 말씀했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교나 신앙이 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와 신앙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청정한 마음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기에 옛 어른들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간절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과 신과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람 입에서 불리기 이전에 우주 질서가 엄연히 있고 사람 도리가 있었다. 이 우주 질서와 사람 도리를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데서, 부처님이 나오고 신과 하나님이 있게 마련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아울러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삼스러운 물음이지만, 그것은 자비의 실현이고 사랑의 실천이다. 진정한 종교는 교회나 절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진실을 스스로 발견해간다. 따라서 참 종교인은 개념화된 신이나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 조직에도 매이지 않으며, 무엇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짜 신인지, 스스로 묻고 탐구하고 알아차리고 눈을 떠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종교나 신앙이 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가 지닌 본디 뜻이 제 마음을 추슬러 자비와 사랑을 펼쳐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새겨야 한다. 교단에 매이지도 않고 참다운 진리를 스스로 묻고 찾아가며 눈을 떠가는 사람이라고 드잡이하는 스승은 신이나 부처에게도 기대지 말라고 말씀한다.

"안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에게 물을 일이 하나도 없다. 의문이란 마음이 명상하지 않고 들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밖에 있는 스승은 다만 우리 내면에 있는 스승을 만나도록 그 길을 가리켜 줄 뿐"이라고 한다. 또한 "성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종교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 진정한 앎이 될 수 없다. 남한테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남이 겪어 말해 놓은 것을 내가 아는 체할 뿐이다. 내가 몸소 겪은 것만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이룬다."라고 말씀한다. 제가 겪어 쌓은 안살림이 개체에서 전체로 나아가며 옹근 나를 드러낼 때 비로소 이웃을 아우를 수 있다는 말씀이다.

스승은 또 길상사 창건 10주년 법회에서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따라온 것이 아니다.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버릇처럼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내가 왜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다져야 삶이 바뀐다. 삶은 바뀌지 않고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이나,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또는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이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 사는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맑음은 개개인 청정하고 진실함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메아리이다.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하는 힘으로 스스로는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씀한다.

절이 있기 전에 수행이 있었다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 스승은 "행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한다고 받아들이지 말라. 굳이 말하자면 깨달음은 보름달처럼 (본디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수행이란 본디 우리에게 있는 말간 마음자리를 드러내어 이웃을 보듬어 안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종파선 종교 내다봄 사라져
본질과 보편성 바로 보아야
종교의 장점 받아 들인다면
내가 의지하는 종교 넓어져

성철 스님도 절은 불공드리는 곳이 아니라 불공드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했다. 무슨 말씀인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을 부처님인 줄 알아 절에서 배운 대로 공양 올리라는 말씀이다.

절에서 배운 대로 이웃에게 공양을 올리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듯이 이웃에게 예배드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돌림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척하지 않고 기를 쓰고 절이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을 보태는 의료진을 비롯해 의료진들에게 잠자리나 밥을 나누는 이들이며, 손님이 없어 쩔쩔매는 가게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덜 받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또 코로나로 힘든 이웃에게 쓰라고 안 먹고 모은 돈을 내놓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같은 이들이며, 필터를 갈아 끼우는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는 이들이다.

그동안 익힌 정진, 어제로 끝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스승은 도량은 그곳에 사는 사람과 도량에 드나드는 사람들 삶이 맑고 향기롭게 바뀌어야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거듭 말씀했다. 또 '길상회' 라는, 파리에 있는 길상사를 열 때 힘을 보탠 어머니들과 정기 모임에서 "신앙생활은 예습이 없다. 하루하루 정진하고 익히는 복습이다. 영적 체험은 복습을 거듭하며 얻어지는 것"이라며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까지 익혔던 정진은 어제로 끝났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했다.

여기서 스승이 말씀하는 정진이나 수행을 사람들이 흔히 여기는 정진이나 수행과는 결이 다르다. 스승이 책이나 편지에서 덕담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눈 덕담이 "날마다 새롭게"라는 글월이 들어간 말씀이다. 어제 밥을 먹었더라도 오늘 또 새로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어제 이웃과 나눈 사랑은 어제로 끝이 났다. 그러니 오늘은 또 새롭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을 수행자라는 스승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 그것이다.

두 늙은이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 한 사람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남에게 욕을 한 적이 없을 만큼 모든 일에 어김없는 고지식한 부자 농부 예핌 따라스비치 세베료프. 다른 한 사람 에리쎄이 보도로프는 돈도 별로 없으나 마음씨 좋고 명랑한 사람으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말 그대로 사나이다.

순례 길에 몇 주일째 걸으며 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는 예핌. 에리쎄이는 잠깐 물을 얻어 마시고 올 테니 예핌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한 농가에 들어선다. 온 식구들이 굶주림 끝에 돌림병을 앓아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것을 본 에리쎄이는 성지순례 가기를 그만두고 그 사람들을 돌보기로 했다.

먼저 길을 떠난 예핌은 성지로 가면서도 논밭은 제대로 가꾸고 있는지 가축은 잘 돌보고 있는지 온통 집안일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지갑을 도둑맞지나 않을까 경계하느라 늘 바빴다.

에리쎄이는 앓는 이들을 돌보는 한편, 주머니를 탈탈 털어 그 집안 식구들이 병을 털고 일어난 뒤 먹고 살 식량과 땔감을 마련해놓고 집으로 돌아와 언제나처럼 명랑하게 집안일을 살폈다.

예루살렘에 닿은 예핌은 순례자들이 빼곡한 성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올리려다가 둥근 빛에 둘러싸인 에리쎄이 뒷모습을 본다. '저 친구가 언제 왔지?' 싶어 다가서려는데 친구 모습은 홀연히 사라지고. 이와 같은 일을 세 차례나 겪은 예핌은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깨닫는다. '아, 나는 몸만 다녀왔구나. 이 세상에서는 죽는 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다 하는 것이 사람 된 도리이구나.'

깨달으면 불자이기를 멈춘다는 스승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힌두교,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처럼 종파라는 문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승은 종파라는 울 안에 갇히면 드넓은 종교 지평을 내다볼 눈을 잃는다. 종파는 가지를 거쳐 줄기와 뿌리로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종교에 담긴 본질과 보편성을 바로 헤아리기 어렵다. 가지는 자세히 살피면서 뿌리를 잊어버린 사람은 길을 잃은 나그네와 다르지 않다. 한쪽 가지만을 붙들고 그게 다라고 거기 집착하면 독선이요 맹신과 광신에 떨어질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 종파에 구애받음 없이 여러 종교가 지닌 좋은 특성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종교 영역이 그만큼 넉넉해질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 끝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마가복음)"라고 덧붙이셨는데 요즘 종교인들이 새겨둬야 할 가르침이 아닐까.

〈법정 스님 눈길〉 저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유·불·도’ 삼교 이끈 불교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⑥ 삼교 및 한유와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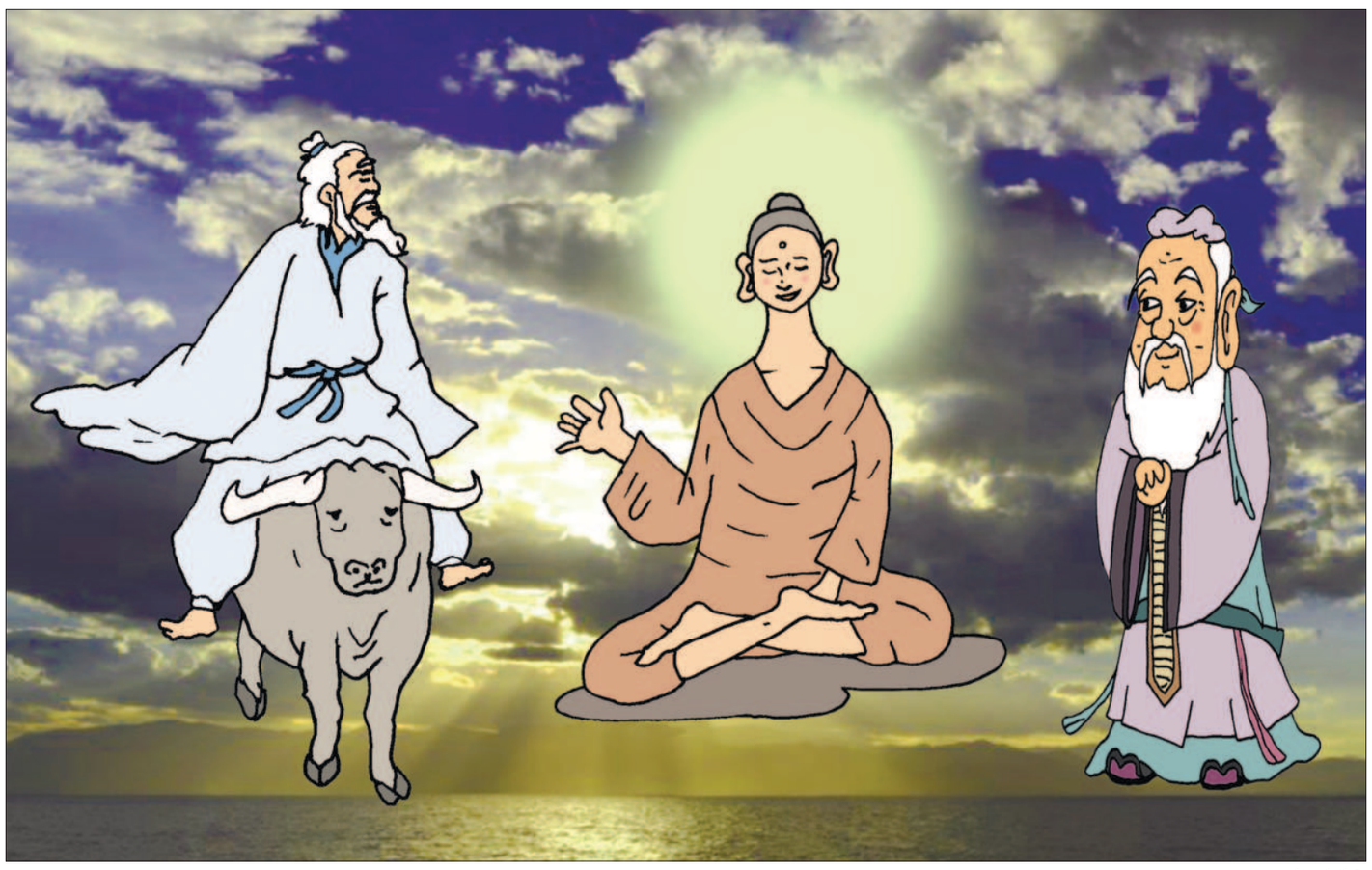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중국 사상사에서 유 · 불 · 도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유구한 역사를 함께했다. 불교는 인도의 석가모니부처님을 기원으로 하며, 유교 기원은 공자를 효시로 하고, 도교는 노자 장자를 기원으로 한다.

중국의 한나라 초에 일찍이 도교가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다. 한나라 이후 도교는 사실 장도릉(張道陵)이 창건했다고 한다. 유가는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한나라 때 동중서(董仲舒)라는 유학자가 유교를 종교화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위진남북조 이래로 이 세 가지를 삼가(三家) 혹은 삼교(三敎)라고 부른다.

초창기의 도교 이론은 비교적 옅으며, 처음에는 실재로 이론체계 및 수행체계도 수립된 것이 없었다. 외래에서 유입된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이론 방면(사실은 경제방면)에서 모순적인 대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처처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사실 도교는 복식(服食) 연단(煉丹, 단약) 방술(方術) 이외, 이론 방면에서 불교와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도교는 목숨을 걸고 불교를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몰래 불교의 이론과 사상 등을 표절했다.

도교의 〈태평경(太平經)〉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 등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표절 작품들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책들은 서진도사 왕부(王浮)가 위조했다고 전해진다.

도교는 노자의 탄생 이적 등 모두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설화를 베낀 것이며, 도교의 계율 등도 불교를 모방한 것이 많다. 또 도교는 천태종의 제2조인 남악혜사(南嶽惠思, 515~577)의 발원문(誓願文)을 표절하기도 했다.

남조 시기, 갈홍(葛洪, 284~364) 도홍경(456~536) 등은 도가의 대표적 인물이다. 갈홍의 저서로 〈포박자(抱樸子)〉가 있고, 이 책에서 ‘현(玄)’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서 천지만물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는 온힘을 다해서 복식(服食) 연단(煉丹, 단약) 방술(方術) 신선 등을 제창했다. 도홍경(陶弘景)의 저술로 〈진고(眞誥)〉가 있다. 또 그는 아주 유명한 연단가(煉丹家)이자 정객(政客)이기도 했다. 호를 ‘산중재상(山中宰相)’이라고도 했다. 갈홍과 도홍경은 모두 신선과 불로장생을 선양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세는 통치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들이 주장했던 사상은 기본적으로 불교와는 전혀 다른 물과 불 같은 관계였다. 현존하는 도교의 방대한 도장(道藏)의 내용도 긴 시간을 통해서 불교를 모방한 작품들이다.

반면에 불교는 탄탄한 이론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실천수행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실천수행을 통한 검증된 체험의 세계를 설하고 있다. 또 불교는 공환(空幻) 환유(幻有)를 주장해서 해탈 열반을 추구하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를 강조하고 ‘무생(無生)’ 즉 무자성(無自性)을 주장한다. 불교의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도교는 격렬한 반대와 논쟁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양승유(梁僧裕)가 지은 〈홍명집(弘明集)〉과 당도선(唐道宣)이 지은 〈광홍명집(廣弘明集)〉에 잘 수록되어 있다.

중국사상사 유 · 불 · 도 조화
도교, 불교 이론 · 사상 모방
유교 · 불교 일찍 상호 교류
유교 선비 정토 수행 · 출가
한유, 훼불 선동하여 배척도
태전선사 만남 후 선종 심취

불교가 최초로 중국에 전해질 때 유교와는 모순이 없었다. 후한 모융(牟融)이 지은 〈이혹론(理惑論)〉은 유교와 도교를 인용해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강승회(康僧會)는 불교도로서 유교와 도교를 주동적으로 조화롭게 논하기도 했다. 위진 남북조시대에도 유교와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다. 동진시대의 손작(孫綽)은 일찍이 〈논어주기(論語注記)〉를 지은 사람으로 지도림(支遁)을 가까이 하면서 〈유도론(喩道論)〉을 짓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유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한집안”이라고 하면서 “주공이 곧 불타이고, 불타가 곧 주공이다. 대개 내외의 이름이 될 뿐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때에 유가(儒家)의 선비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귀의했으며, 불교도 역시 유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이른바 여산십팔고현(廬山十八高賢) 중 뢰차종(雷次宗) 종병(宗炳) 등은 모두 유교의 선비로서 정토를 수행했다. 여산의 혜원선사 역시 유가를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 남북조에서 수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출가자가 유학자 집안의 출신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유교와 불교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나라 때 한유 등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유교는 도교처럼 극단적인 대립은 없었고 다만 개인적으로 반대한 정도였다. 그러나 불교는 판교를 할 때 유교를 가장 하위에 두는 판교를 하였다.

당나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생들이 비교적 불교를 많이 반대하였는데, 그 이론이 그리 깊고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유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역시 불교에 대해서 그리 깊은 식견을 가지고 불교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가 지은 〈원도(原道)〉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그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유교전통을 통해서 중국전통문화를 보호하려 했다. 이른바 도통(道統)이라는 이론을 수립해서 유가의 덕목인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가지고 유가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불교의 면세, 부역 해택 등에 대한 불만 및 승려들이 노동하지 않고 무위도식한다고 여기면서 불교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한유는 훼불할 것을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을 환속하게 하고 사원을 개조해서 일반 백성이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韓愈, 768~824)의 자는 퇴지(退之)이다. 등주(鄧州)인이며, 세칭 한창려(韓昌黎)라고도 한다. 그는 불교사에 등장하는 태전선사와 흥연의 일화속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대의 유명한 철학가 문학가 교육가이면서 당송 팔대 문장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문성(文聖)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한유는 우리 불교사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는 불교를 배척하였지만, 귀양처에서 태전선사와 만남으로 인해서 호불(好佛)로 바뀐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도통학(道統學) 및 불교를 비판한 사건은 송명이학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나라 헌종 때(819)에 국가적인 행사로 부처님 사리를 봉행하는 성대한 불교의식을 행하였다.

법문사의 부처님 손가락사리(手指骨)를 모셔서 궁중에서 공양하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불교신자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한유는 이러한 불교의식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논불골표(論佛骨表)〉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그는 상소를 올려서 부처님 사리를 궁안에 영접해서 법회를 봉안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헌종에게 상소를 올려 옛적의 양무제를 빗대어서 말하기를 “불사를 해서 복을 구하면 더욱 화를 입는다”고 했다. 또 비평하기를 ‘불불족신(佛不足信)’리하고 하면서, 불교는 본래 오랑캐의 것인데(佛本夷狄), “입으로 선왕의 법을 말하지 않고, 몸은 선왕의 법복을 입지 않고, 군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알지 못한다.”며 “부처가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어서 말라 썩어버린 뼈다귀에 불과한데, 어떻게 황제께서는 죽어서 오래된 뼈다귀를 친히 궁정에 맞아드리는지 신이 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고 했다. 또한 “지금부터 이 뼈를 없애고 영원히 근본을 끊고 천하에 의심을 끊게 해서 후대에 의혹을 끊어야 합니다.”고 대담하게 황제를 훈시하였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유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한 것으로 사리를 불에 태워버려서 영원히 그 화근을 없애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가 헌종의 분노를 사서 즉시 처형하라는 황제의 어명이 떨어졌는데 배도(裴度) 최군(崔群) 등이 적극적인 보호로 극형은 면하고 조주자사(潮州자사, 광동성 작은 해안도시)로 좌천되었다. 유배지에서 태전선사(大顚禪師)를 만나면서 말년에 도리어 선종에 심취하게 되었다.

한유가 황제의 노여움을 받고 조주(潮州)에 유배되었을 때, 어느 날 길에서 고승을 만나게 되었다. 모양새가 매우 흉악하게 생겼는데, 특히 입 밖으로 삐져나온 두개의 치아가 더욱더 보기가 흉한 형상이었다.

한유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스님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고 마음속으로 저 입 밖으로 삐져나온 치아를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관아에 돌아오니 문지기가 빨간 주머니(紅包) 하나를 주면서 어떤 스님이 주고 갔다고 했다.

그가 그 빨간 주머니를 열어 보자, 그 안에 두개의 치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본 그 스님의 치아와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그는 사람을 보내서 그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그 유명한 조주 영산사(靈山寺)의 태전선사였다.

태전선사는 박학다식한 선승으로 유명했다. 한유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선사에게 사과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깊은 교유를 하였으며, 후래인들이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암자를 지었는데 고치암(叩齒庵)이다.

〈동국대 강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전륜성왕 꿈꾼 미얀마 왕조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⑥ 공덕의 땅, 바간

2019년도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얀마의 바간(Bagan)이 등재되었다. 미얀마 국민들에게 바간은 오래전부터 자부심의 원천(源泉)이자, 삶을 마감하기 전 반드시 여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미얀마 불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얀마는 13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버마족이 6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 버마족의 뿌리는 바간 왕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바간 왕조를 이룬 티베트-버마족은 중국 남조의 부용(附庸)민족으로 윈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 남조가 멸망하면서 티베트-버마족은 미얀마의 중부지대로 이동하여 바간이라는 왕조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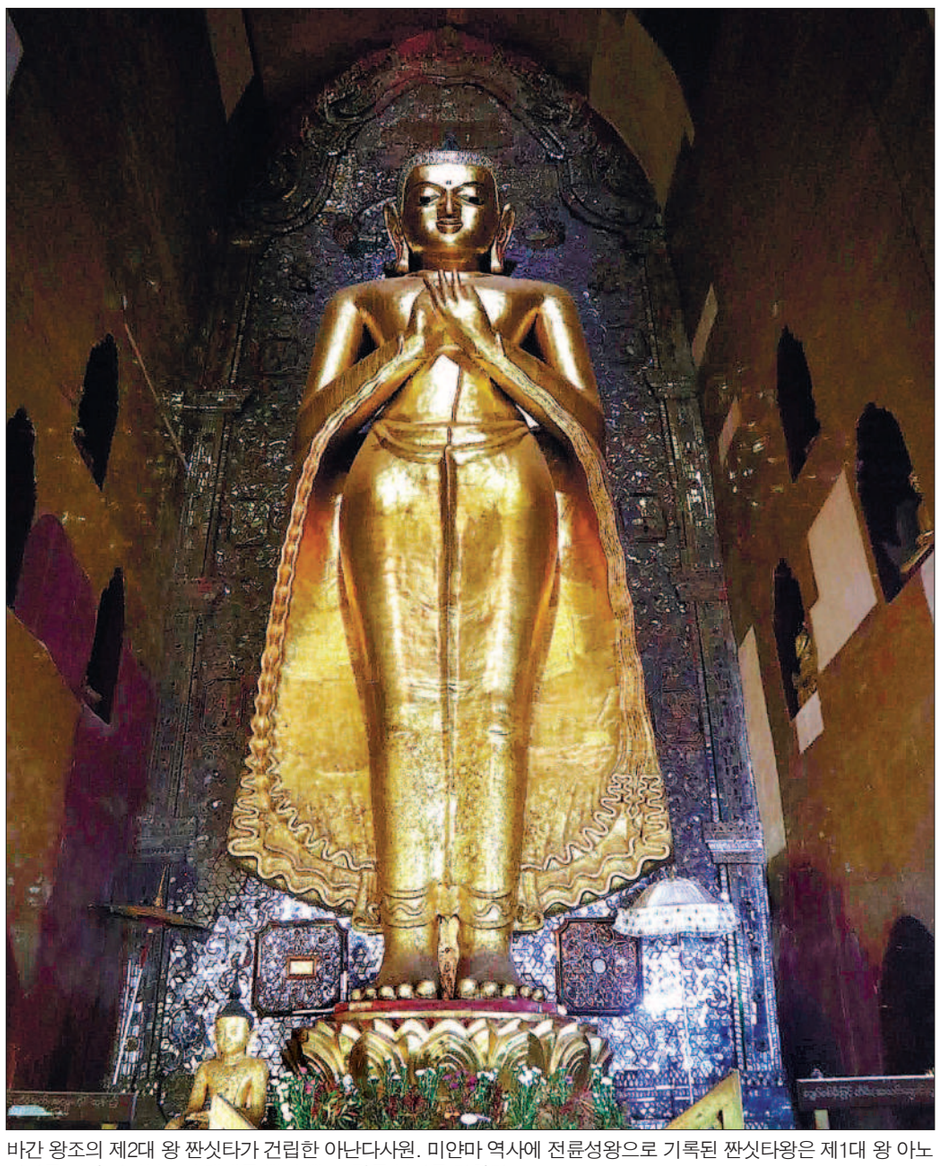
바간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아노야타(Anawrahta)는 전략적인 전술로 영토를 넓혀갔다. 미얀마 남쪽지역에서 오랫동안 몬(Mon)족이 유지해 온 따톤(Thaton) 왕국을 침략하여 이라와디강(Irrawaddy)의 삼각주를 지배하게 되었다. 몬족은 당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다. 따톤 왕국은 200년경의 인도의 아소카(Asoka)왕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또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술과 문학의 수준이 높았다. 바간 왕조는 따톤 왕국의 발전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전쟁에 능했던 바간 왕조의 명성은 그들의 수도인 '바간'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바간은 빨리어인 '아리마다나 뿌라(Arimaddana Pura)-적군을 물리친 자의 도시'라는 뜻의 기원을 두고 있다.

바간 왕조의 명성은 현대 미얀마 군부정권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사용되었다. 쏘마웅(Saw Maung) 장군은 스스로를 바간 왕조 짠싯타(Kyansittha)왕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명분을 찾으려고 했다. 전쟁을 통해 바간 왕조는 티베트-버마족 이외의 몬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게 되었다. 당시 바간은 여러 왕국이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고,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고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다.

아리불교 폐해 뿌리 뽑아

미얀마 바간을 기점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던 아노야타왕은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 당시 바간 지역에는 아리불교(Ari buddhism)가 성행하고 있었다. 아리불교는 토착신앙과 밀교가 합쳐진 후 불교의 본래 법(法)이 변질되었다. 30여 명의 아리승(僧)들은 부처의 설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를 경전으로 만들어 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해서 바간 지역의 왕조부터 백성들까지 악행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유리궁연대기〉에는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도 아리 경전을 독송하면 그 살인죄를 면할 수 있다. 결혼을 하기 전 신부는 '순결의 꽃'이라는 의식을 하기 위해 아리승들에게 바쳐져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간 왕조의 제2대 왕 짠싯타가 건립한 아난다사원. 미얀마 역사에 전륜성왕으로 기록된 짠싯타왕은 제1대 왕 아노야타를 이어 아리불교의 폐해를 뿌리 뽑고, 각종 불사를 마쳤다.

정법(正法)을 찾고 있던 아노야타왕에게 몬족 출신의 신아라한(Shin Arahan) 스님이 나타났다. 신아라한 스님의 설법을 들은 후 크게 감동한 아노야타왕은 바간 왕국에 테라와다 불교를 받아들였다. 신아라한 스님은 아노야타왕에게 불법(佛法)을 제대로 바간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삼장(三藏)을 몬 왕국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아노야타왕은 몬 왕국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

하지만 몬 왕국의 왕은 아노야타왕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다. 아노야타왕은 매우 화가 나서 몬 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여 이긴 후, 마침내 삼장을 바간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 이후 삼장 필사가 진행되었고 바간 왕국에 있는 모든 사원으로 삼장 필사본이 전해지게 되었다. 경전의 보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승가(僧伽)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 주축 버마족의 뿌리
바간 왕조에서 찾을 수 있어
테라와다 불교 받아들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 되려 노력

전쟁을 통해서라도 바간 왕국으로 삼장을 가져올 정도로 불심(佛心)이 깊었던 아노야타왕은 불교의 이상적인 지도자인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 신아라한 스님과 함께 승가를 정비하고 경전을 보급하였으며, 수많은 파고다(Pagoda)를 지었다. 아노야타왕의 불심은 향후 바간 왕조 왕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노야타왕의 불심이 담긴 파고다들은 현재 미얀마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설이 되어 전해진다.

아노야타왕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쉐지곤 파고다(Shwezigon Pagoda)·딴찌따웅 파고다(Tant Kyi Taung Pagoda)·러까난다 파고다(Lawka Nanda Pagoda)·뚜인따웅 파고다(Tu Yin Taung Pagoda)를 만들었다. 4개의 파고다에 방문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보시한 후, 한 가지 소원을 간절히 빈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한다. 단,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방문해야 한다.



아노야타왕이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운 쉐지곤 파고다.

전륜성왕 기록된 제2대 짠싯타왕

짠싯타왕은 아노야타왕이 친애하던 부하였다.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짠싯타왕은 아노야타왕의 아내인 마니싼다(Manisanda) 혹은 킨우(Khin Oo)라고 불리는 왕비와의 사랑이 들통 나서 내쫓기게 되었다. 아노야타왕이 서거한 후 아노야타왕의 아들이 왕좌에 앉았지만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제압하면서 짠싯타왕이 바간 제2대 왕좌에 앉게 되었다.

짠싯타왕은 아노야타왕으로 시작하는 바간 왕조의 명맥을 잇기 위해 '쉐지곤 파고다'에 공을 들였다. 쉐지곤 파고다는 아노야타왕 때 건축하기 시작해서 짠싯타왕 때 완공되었다. 짠싯타왕은 아노야타왕의 명맥을 얻기 위해 기존의 쉐지곤 파고다보다 조금 더 크게 완성했다.

짠싯타왕은 아노야타왕처럼 전륜성왕이 되고 싶었다. 짠싯타왕의 이런 노력은 비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후대에 기록되어 남아있다. 비문에는 짠싯타왕이 빨리어로 'Cakkavatti(전륜성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노야타왕의 뒤를 이은 짠싯타왕은 몬족과 버마족의 융합정책을 위해 불교를 활용했다. 버마족의 문화보다 발전한 몬족의 문화를 불교로 포용했다. 또한 버마족이 가질 수 있는 몬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불교로 극복하였다.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이질감을 같은 종교를 믿는 불교도라는 의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한 것이다. 동시에 짠싯타왕은 자신을 불교의 보호자로 자처하여 불교에서 정신적 피안처와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순수 왕족 혈통은 아니지만 불교를 통해 아노야타왕의 후계자로 인정받아 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짠싯타왕이 건립한 파고다 중 아난다 사원(Ananda Temple)을 통해서 그의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아난다 사원은 바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며 완벽한 대칭균형을 보여줄 정도로 완벽하게 지어졌다. 이곳에는 4개의 불상(佛像)이 각각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다. 남쪽에 위치한 불상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부처님의 표정이 다르게 느껴진다. 왕과 귀족들이 앉았던 맨 앞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백성들이 앉았던 맨 뒤에서 바라보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미소는 힘든 삶에서 시원한 소나기로 느껴질 만큼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아노야타왕과 짠싯타왕은 타락한 아리 불교의 뿌리를 뽑아내고 테라와다 불교의 씨앗을 심어 불법이 살아 숨 쉬는 공덕의 나라 바간 왕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 바간 왕국에는 4500여개의 불탑이 있었지만 수많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현재는 약 2500개가 남아있다.

바간 왕조의 왕들이 수많은 탑을 건립한 것은 자신들의 불심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전륜성왕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통치를 하고 싶었던 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공덕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미얀마 바간에 여행을 온다면 수많은 탑을 바라보면서 각 탑을 만든 바간 시대 왕들과 마주해보는 것은 어떨까?

〈양곤대 박사과정〉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법 설하고 들을 줄 안다는 것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⑫ 진여자성

대덕들이여, 여러분이 우선 빛 그림자를 희롱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곳이 도를 닦는 이들이 돌아가는 집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은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오장육부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무엇이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역력한 것이 아무 모양도 없으면서 홀로 밝은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것이니 만약 이것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조사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시간 속에서 끊어짐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인데 단지 망정이 생겨 지혜의 작용이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본체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에 윤회해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만약 산승의 본 것을 가지고 말하면 매우 심오하지 않음이 없으며 해탈의 경계가 아닌 것이 없다.

부처가 무엇인가? 임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빛 그림자가 부처의 본래 근원이라고 말한다. '번뇌가 곧 보리' 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빛 그림자(光影)란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마음의 그림자다. 쉽게 말해 감각으로 보고 듣는 그 속에 부처의 정체가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흔히 진여자성(眞如自性)이라고 말하는 그것이다. 몸을 놀리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이것의 작용이다.

이어 임제는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주인공이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대(四大)로 구성된 육체나 오장육부가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며, 허공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밝은 것이 법을 설하고 듣는다 한다. 이것을 보는 이가 불조(佛祖)요, 중생들은 망정이 생겨 이것을 못 보고 지혜가 막혀 윤회를 면치 못하고 온갖 고통을 받는다 하였다. 영원한 인격적 생명인 진여자성은 심오하기 그지없으며 언제나 초월적 절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일러 놓는다.

"모든 시간에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一切時中에 更莫間斷)"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위법(無爲法)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과거 어느 시점에 생겨나거나 미래 어느 시점에 소멸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없는 유무의 경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서산대사의 오도송(悟道頌)에 "머리털은 희어지지만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 는 말이 나온다.

髮白心非白 머리털은 희어지지만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고

古人曾漏洩 옛사람들이 일찍이 말해 왔는데

今聞一聲鷄 지금 닭 우는 소리 한 번 듣고

丈夫能事畢 장부가 해야 할 일 마쳐버렸네

금강산에서 내려와 남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다 지리산 아래 어느 마을을 지나다 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지었다는 시이다. 첫 구의 뜻은 몸은 늙으나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다. 땅위에 있는 만물은 연륜이 있지만 허공인 하늘은 연륜이 없다는 말이다.

마음 마음 하지만 생각이 덮여 있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덮여 있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 한다. 전자를 진여심(眞如心)이라 하고 후자를 생멸심(生滅心)이라 한다. 진여심 그것이 깨달음(覺)이다. 그리하여 〈대승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정의하여 "마음의 본바탕에 생각이 떠나간 것(心體離念)"이라 하였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걷히면 청명한 날씨가 되듯 허망한 생각이 떠나갈 때 빛이 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진여에 의해서다. 바다가 강에 물이 있으니까 파도가 일어난다는 논리다. 파도가 쉰 고요한 물이 되어야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된다. 이것이 해인삼매(海印三昧)요 이것이 선(禪)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佛性은 수릉엄삼매

〈首楞嚴三昧〉



세상 속 경전읽기

⑫ 수릉엄삼매의 5종(種) 이름

을(乙)이라는 사람은 갑(甲)의 아들이고, 병(丙)의 아버지이며, 정(丁)의 친구이다. 회사에서는 과장이다. 을(乙)은 이와 같이 처한 곳에 따라 아들, 아버지, 친구, 과장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붓다가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娑羅雙樹) 아래에서 열반에 들 때에 대중에게 설한 경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이 중 북량(北涼)의 담무참(曇無讖) 번역본(T0374)을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이라고도 한다. 송(宋)의 혜엄(慧嚴) 번역본(T0375)은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이라고도 하며, 법현(法顯)이 번역한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을 참조하여 〈북본열반경〉의 번역에서 모호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재편집한 것으로, 내용은 〈북본열반경〉과 같다.

이 〈대반열반경〉 가운데,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의 성품이 제호(醍醐)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 우유를 정제하면 유(乳), 낙(酪), 생소(生酥), 숙소(熟酥), 제호의 5가지 단계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 중 제호의 맛이 가장 좋다. '제호상미(醍醐上味)' 를 줄여 '제호' 라고도 하니, 제호는 불교에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맛, 곧 가장 숭고한 부처의 경지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수릉엄삼매가 제호와 같다는 것은, 삼매 중 가장 수승한 삼매라는 뜻이다.

이 수릉엄삼매로 인해 아누다라삼먁삼보디[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를 얻어 붓다가 탄생되니, 수릉엄삼매는 불모(佛母, 붓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또 수릉엄삼매로 인해 열반을 이루니, 붓다로 하여금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누리게 한다. 이러한 힘을 가진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는 위에 언급한 을(乙)의 경우처럼, 처한 경우에 따라 다섯 가지 이름으로 불리니, 수릉엄삼매 · 반야바라밀 · 금강삼매 · 사자후삼매 · 불성이다.

"불성(佛性)은 곧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이니 성품이 제호(醍醐, 우유를 가공한 식품 가운데 가장 맛이 좋은 최상품)와 같으며, 모든 붓다의 어머니이다. 수릉엄삼매의 힘으로써 모든 붓다들로 하여금 상락아정(常樂我淨,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다 수릉엄삼매를 갖추었건만 닦아 행하지 않으므로 보지 못하며, 그러므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수릉엄삼매에 다섯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요 둘째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요 셋째 금강삼매(金剛三昧)요 넷째 사자후삼매(師子吼三昧)요 다섯째 불성(佛性)이니, 그 짓는 바에 따라서 곳곳마다 이름을 얻느니라."

〈大般涅槃經 T0375_.12.0769b01–09〉

용수(龍樹)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주석한 논서인 〈대지도론(大智度論)〉은 〈마하반야바라밀경석론〉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수릉엄삼매를 '건상(健相, 건강한 모습)' 이라고 뜻번역하였다. 또 수릉엄삼매는 모든 삼매의 모습을 다 꿰뚫어 알고, 번뇌마(煩惱魔)나 천자마(天子魔)가 감히 파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릉엄삼매란, 중국말로 '강건한 모습[건상(健相)]' 이라고 한다. 모든 삼매의 행상(行相)의 많고 적고 깊고 얕은 것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마치 큰 장수가 병사들의 힘이 많고 적음을 아는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이 이 삼매를 얻으면 모든 번뇌마(煩惱魔)와 마(魔)의 백성이 능히 파괴할 수 없나니, 비유컨대 마치 전륜성왕의 주력부대의 장수가 가는 곳마다, 항복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과 같다." 〈大智度論 T1509_.25.0398c27–0399a02〉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⑱ 이해의 길 38

회통과 비빔밥

〈會通〉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비빔밥이 있다. 콩나물이나 시금치 등을 비롯한 각종 나물들을 밥과 함께 비벼서 먹는 간단한 음식이다. 그런데 밥과 나물들이 잘 어우러져 고유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빔밥은 나물들 각자의 맛은 유지하면서도 공존과 조화라는 새로운 맛을 낸다. 이 음식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모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징과도 같다.

비빔밥은 한국불교의 성격을 설명할 때도 종종 등장한다. 혹자는 한국불교를 가리켜 '비빔밥 불교' 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종파불교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 로 회통(會通)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회통이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會)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소통(通)한다는 뜻이다. 화엄이나 유식, 천태, 선 등 다양한 종파들은 저마다 고유한 사상과 전통, 의식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화엄경〉과 〈법화경〉을 공부하며, 진언을 독송하기도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이런 한국불교의 성격을 비빔밥에 비유한 것이다.

회통이란 용어 앞에 원융(圓融)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원융이란 글자 그대로 원만(圓)하여 막힘이 없다(融)는 뜻이다. 아무리 다른 사상과 문화가 만난다 해도 두꺼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물고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한국불교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 내의 다양한 사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신앙과 회통하려는 모습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자들은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참배하고 자연스럽게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들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국불교가 항상 원융 회통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 신라 때는 내 학설은 옳고 다른 학설은 그르다는 쟁론(爭論)이 '강과 바다' 를 이루고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선종과 교종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여지없이 회통의 에너지가 작동하곤 했다. 한국의 불교 사상가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곤 했다. 원효나 지눌, 휴정 등은 회통불교의 전통을 확립한 대가들이다.

원효를 예로 들면, 그는 개합종요(開合宗要)라는 논리를 통해 당시 종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는 각 종파에서 소의로 하고 있는 경론(經論)은 '하나인 마음(一心)' 의 펼침(開)이며, 이것을 모으면(合) 다시 일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각각의 종파 또한 일심을 펼친(宗) 것이며, 요약(要)하면 일심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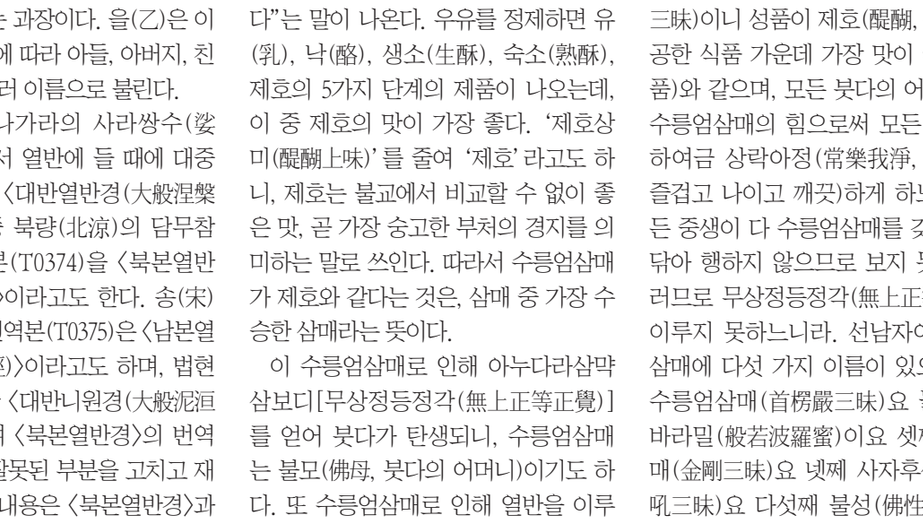
이를 물과 얼음, 수증기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은 필요에 따라 여러 모양의 얼음으로 펼칠 수 있으며, 이것을 녹이면 다시 물이 된다. 여름에 팥빙수를 먹기 위해서는 물을 얼려야 하며, 겨울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 한다.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하려면 수증기도 필요하다. 물이나 얼음, 수증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H2O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일심도 물과 같아서 필요에 따라 화엄이나 유식, 천태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원효의 생각이었다. 참으로 멋진 발상이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아우르려는 성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DNA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회통사상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시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불교사상을 담을 수 있는 양푼, 요즘말로 플랫폼과 같다 할 것이다. 그 양푼 옆에는 여러 음식들을 맛있게 버무릴 수 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늘 놓여있다. 남은 것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않고 맛있게 비비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죽음, 무한 생명으로 이어지다

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6〉 분노에 항복하기



참을성의 수련을 통해서 기른 인내를 몸에 익힌 후에 당신은 분석적인 정념을 동원해서 통찰에 바탕을 둔 능동적인 자제의 경지로 올라가야 한다.

분노는 항상 하나의 틀 안에 불타오른다. 즉 습관적으로 심지어 본능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자신을 실체화하고 과도하게 타인을 대상화하는데서 오는 개념적인 표적화 안에서 불타오른다. 당신이 화를 내는 사람과 관련해서 당신은 특히 그 사람의 의도에 주목한다. 보통 이러한 마음의 작동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절대화하고 과도하게 타인을 대상화하는데서 오는 개념적인 표적화 안에서 불타오른다. 당신이 화를 내는 사람과 관련해서 당신은 특히 그 사람의 의도에 주목한다. 보통 이러한 마음의 작동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절대화한 자아감각으로부터 투사해서 당신의 적 안에 하나의 인격을 절대화하고 그 적의 자아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부여하고 그가 당신을 해치기를 냉혹하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은 편집증을 느끼고 적이 할지 모를 일을 두려워하면서 분노를 선제적으로 폭발시키고 그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절망적으로 약속한다.

여기서 분노가 자연의 자연스러운 폭발력인 것 같아보여도 실제로는 습관적이고 분별적인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담즙으로 인해 열이 나고 아플 때, 그리고 원소들이 재해, 지진, 홍수, 화재, 폭풍을 일으킬 때, 당신은 담즙이나 지수화풍에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중생을 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을 해치기를 이미 원하고 있고, 지금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할 중생에게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를 투사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 상황과 관련하여 좀 더 집중된 정념을 하고 그리고 자신과 대적의 실재, 그리고 상황의 실재를 분석하게 되면 당신은 대적이 땅이나 강처럼 단지 자동장치에 불과하다는 것, 그의 행동도 당신의 행동처럼 무의식적 충동과 태도에 의해서 추동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에게는 독립적인 의지가 전혀 없으며 그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적 충동의 무력한 희생자일 뿐이다.

우선 분노에 항복한다는 것이 결코 분노에 다시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이번에 분명히 하고 싶다. 그보다 이것은 예전에는 분노의 통제 하에 있었던 강력한 에너지, 즉 모든 그림자를 물리치는 불과 연소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그 것을 지혜롭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인내가 최고조에 도달하면 깨달은 사람은 그 인내를 통하여 초월하게 되며 인내를 더 기르기 위한 기회로 상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일체의 초월은 그 초월들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으면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다. 지혜가 초월하고 무아가 완전히 경험될 때 인내가 초월하게 되며 더 이상적, 가해자, 상처, 상처받은 자 사이에 진정한 차이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초월적으로 인내하는 자는 상처받을 수가 없다. 초월적 인내는 침해받을 수 없는 지복(至福), 고갈하지 않는 지복으로 그 사람을 채우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완전한 일치에서 오는 지복을 누리면서 표면적인 개별화를 여전히 자각하지만, 그의 지복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

끝까지 무아인 그의 몸, 즉 모든 생명을 포괄하는 그 몸의 일부 어딘가에 여전히 표면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 고통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자비에 찬 감수성을 갖는다해도 그 지복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즉 중생 자신들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잘못된 느낌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소외감이 그들 자신의 잠재적 지복이라는 실재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자신의 고립을 타개하려고 한다. 여기에

> **초월적 인내, 지복 변환**
> **지혜와 자비의 자유로움**
> **스스로 느끼며 공포극복**

는 깨달은 자도 포함되지만 그런 표면적인 상처는 그의 지복(至福)을 방해할 수 없다.

인내요가, 통찰요가, 용서하는 인내의 요가들로 분노를 정복해도 그 분노의 맹렬한 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지혜를 갖춘 영웅적인 천사가 그 불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분노는 이제 창조 초월이 되고 기쁨에 찬 영웅의 에너지가 된다.

이 경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더 이상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향상을 이끌어 낼 필요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진화적인 자기 이익을 따지지도 않는다.

이 것은 이경지에 이른 사람이 자기를 없애는 순교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완성적인 존재, 황홀하게 지복을 누리는 완전히 자기 만족적인 존재, 지복공불이의 인격을 이룬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헤루카' 라고도 불리는데 자비를 통해서 무아를 신체화한 남녀 영웅이다.

이런 영역에서 분노가 파괴적으로 부리던 에너지는 창조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쓰인다. 위대한 故타라툴쿠 라마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이들 에너지는 그것들이 무지에서 나온 고통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도 이미 지혜에 의해서 모두 파괴될 운명이었다고 한다. 망념, 교만, 인색, 정욕, 질투, 그리고 마지막 분노, 이 모든 것들은 파괴되어야 할 것이다. 망념은 무지 또는 착각이며, 이 모든 것들의 뿌리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자-타 분별의 실체화에 의지해서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가졌다는 자아, 사람과 사물들이 가졌다는 자아를 절대화 하는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착각이 최종적으로 파괴되면 분노 등이 부리던 에너지들은 자유의 에너지가 된다. 지혜는 그들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유와 지복의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망념은 거울같은 지혜가 된다. 이 지혜는 물질적 형상의 세계를 상대성의 거울에 비춰주고 다이아몬드처럼 하얀 자유의 세계를 드러내고 외견으로만 자기 충족으로 보이는 물질적 사물들이 순수한 상호관계 속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교만, 인색은 평등성의 지혜가 된다. 이 지혜는 자아와 타자, 사람과 사물의 평등성을 통찰력 있게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 지혜는 순수 보시의 황금빛 광휘로 빛나면서 모든 존재와 사물들은 스스로를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주게 된다.

정욕, 탐욕은 개별화하는 지혜가 된다. 이 지혜는 루비같이 빨간색의 에너지인데 그 안에서 자비는 지복이 넘쳐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형상들을 창조해서 고통받는 소외된 존재들과 상호작용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포용해서 양육하고, 자유롭게 하고 다른 존재들과 사물들과 서로 해방시키는 관계를 갖게 한다. 질투, 경쟁은 에메랄드 같은 초록색 에너지가 되어 자아와 타자를 상상도 못할 정도의 통합체로 만든다. 이 통합체는 소외되고 고립된 일상적인 존재들에게는 기적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밝고 검푸른 사파이어로 빛나는 절대 순수지혜의 레이저 빛이 된다. 이 빛은 철저하게 불변이고 상대적으로 절대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모든 차이와 대립을 흡수하고 일체의 장애물을 파괴하고 모든 복잡성과 자유에 저항하는 매듭을 절단하며, 생사를 삼키고,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자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킨다. 이 빛은 모든 이기주의와 혼란을 파괴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해서 어떤 것도 이에 저항할 수 없다. 이 것은 자유 그 자체이고, 자유로부터도 자유롭고 자유로움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유이다. 그래서 이 자유는 모든 차원의 섬세하고 창조적인 관계 안에서 무한히 현존한다.

이 것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폭발, 블랙홀, 펄사, 번개,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 자유는 비이원성, 궁극의 상대적 통일, 자아와 타자의 연대, 지혜와 자비, 지복공불이라는 지고의 실재를 드러낸다.

무시무시한 여러 제불 화신들은 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묘사한다. 야만타카, 또는 바즈라바이라바는 선정불의 모습으로서 분노를 향한 분노의 지고의 성상역할을 하고 있다.

보살로 계속 남아있는 붓다인 문수보살은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영원한 청년으로, 지혜의 불멸성을 드러내는 절묘하고도 공포스러운 화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붓다의 화신을 만날 때, 우리는 전율하면서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마저 끝이 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는 것을, 그 죽음은 무한한 생명과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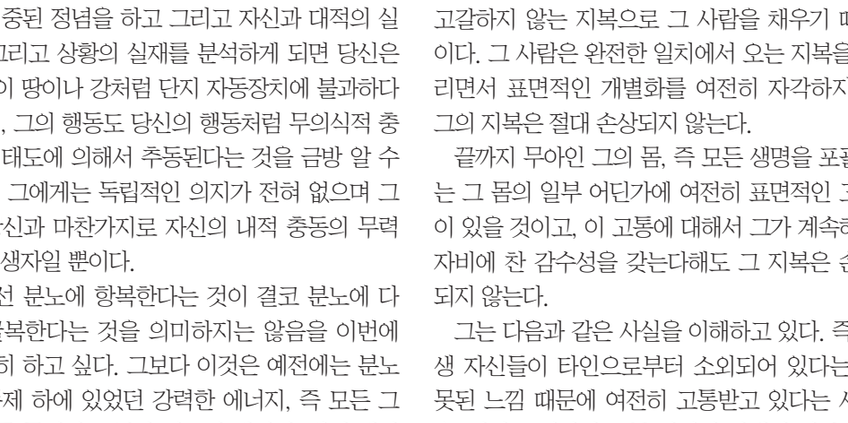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86호 | 15 | 전면광고

도둑의 침해를 당하면 그 괴로움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근이라는 도둑의 화는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그 해는 지극히 무거울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황토장뚜껑 판매점
- 1개 : 2만 5천원 3개이상 주문택배
- 판매점은 100개이상 주문생산
- 지장성모님 법당등록 설계

법당불 100만원, 가족불 50만원 무속인 사절, 불교보살만 접수
구비서류 :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사본 준성직자 보살 처사님 승려고시함
회불대학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그곳에 가서 빌면 원하는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위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785에 있는 국가 기록 문사입니다. 이 사실을 2019년에 발견하여 우선 컨테이너기도실로 마련하였아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 성취 소원의 꿈을 이루십시오.
관련책자 (기도치료원리 그 바깥일들) 280쪽이 필요하시면 책값과 운송료포함, 20,000원입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1038-02-004763 농협 352-0943-7979-03 정보석
안내: 010-3557-2773, 010-2093-3385
여의 기도 대성지 도량 건립 발원자 드림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50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비구 · 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남(男)·여(女)관계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영통도사 명진 -
010-4912-3544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 · 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 문의 | 02-732-1520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방광불화엄경 속의 내재된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
1. 화엄경은 여래가 설(說)한 경이 아니다. 여래에 대(對)한 경이다.
2. 화염경에서의 여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3. 법신부처님은 잠시도 쉼 없이 장엄정토를 위해 노력하신다.
4. '신위도원공덕모'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5. **믿음(信)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다.**
6. 대연화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자연재해를 이기는 약이 되고, 수명이 무수겁으로 늘어난다.
7.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8. 보현행원은 발보리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신부처님과 합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9. 화엄경의 진실을 밝힌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10-7131-7084
화엄경 진실의 유통선양회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6호 | 16 | 전면광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라.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 거두지만 법신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6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부산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 대지 100평
- 법당 20평(2층)
- 1층 28평, 방3개, 화장실
- 가액 : 2억 3천만원

010-8611- 756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권리금 : 6천만원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완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 158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약 1,200평
- 법당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공양간, 요사채, 창고,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9천 5백만원
- 부득이한사정

010-4628-5699

사찰및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칠원읍
- 법당 30평(주방, 해우소)
- 요사채 28평(방3, 주방, 해우소)
- 대지 115평, 임야 10평
- 가액 : 1억 6천

010-3906-371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포교당 안내

- 위치 : 제주시 서광로 29길 11, 3층
- 60평, 큰방2, 법당, 창고, 공양간, 화장실2
- 임대료 : 1년 5백만원

010-4010-407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미륵암 8백평 내 독채3채, 가을에 곶감공장, 텃밭. 농사 지으실 분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100만 / 월세 25만
- 권리금(상담후 결정)

011-759-0183

◑ 입종 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별장같은 토굴 임대

- 위치 : 제주시(판넬주택)
- 임야 약1천2백평중 대지132평
- 법당(26평), 요사채(36평), 야외법당(약사여래불), 시설일체완료 (바랑만 메고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

010-4846-3968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이왕지사 욕심을 부리려면 아예 그냥 바닷물을 다 집어삼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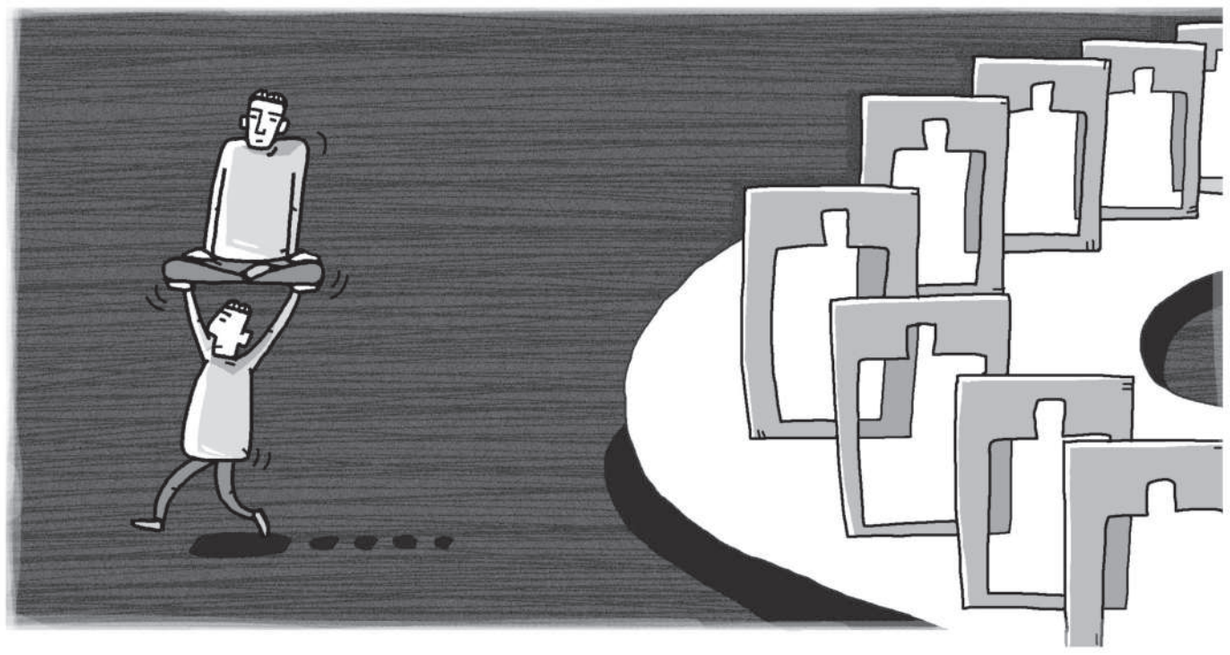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꼭 공부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진실하게 내 안으로, 낱낱이 안으로 굴려서 안으로 돌리는 거, 이 생활하는 모든 거, 죽고 사는 거, 생사윤회를, 모든 거를 내 마음 안으로 돌리는 데에 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돌려놓으라고, 놓으라고 그러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약에 죽을 때는, 죽기 전에 자기 갈 자리를 자기가 다 마련해 놓고 가요. 이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요점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몸을 벗을 때도 벗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벌써 정자와 난자를 좇아서 어디를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열 달 내내 길러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저런 다른 큰 생명이 된다든가 이래도 말이에요, 그걸 꼭 사람으로만 비유하지 마세요. 사람 이외의 정말 벗어난 선인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정망해서 다 해 놓고, 또 사람이 된다 하면 만 아홉 달이 되지만 이 만 아홉 달은 우리 지구에서 쓰는 거지 딴 데서는 만 아홉 달이라는 게 똑같이 쓰여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쪽으로 가고 이 옷은 벗어요. 또 사람으로 내가 화한다 할 때는 거기 배 속에 들어가서 아홉 달 내내 길러 가지고 내가 목숨이 한 찰나에 딱 떨어질 때 벌써 그리로 가요. 이건 벌써 미리 가 있어요. 여기는 사는 습만 있다 뿐이지 그리로 가서, 바로 자기가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선처해서 벌써 자기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 길잡이는 자기죠. 자기 이외에 길잡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공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가 자기 개척을 못 하고 자기가 길을 모르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살던 자기의 습이 있어 가지고 눈이 캄캄하니까. 그래서 살던 습에 의해서 자기가 착을 두고 있는 데에 그냥 머물러 버리죠. 거기에 머물러져 버리니까 때에 따라서 그 영계는 집에서 뱅뱅뱅뱅 산 사람한테 도는 거죠. 자식과 부모 뭐, 누구를 막론하고 얘기예요. 집안의 친척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몰라도 그 길은 알거든. 그러니깐 그 습에 의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니죠, 자기에게 잘해 준 사람 앞에 또는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남의 논 등에 주저앉는 법도 있죠. 저희 집 식구들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 친구한테로 가거든요. 이게 참, 문제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 바깥으로만 만날 돌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가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타의에 의해서 내가 길을 인도받아야 할 텐데 그 은사도 똑바른 사람을 못 뒀다면 그마저도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캄캄하고 그래서 결국은 개집이나 뭐, 새 둥우리나 무슨 족제비 소굴이나 돼지 소굴이나 소 외양간으로 뭐, 이런 데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또 자기가 마음이 착해서 참, 요행히 걸려서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차원을 가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십중팔구란 말입니다. 아니, 열 번에 한 사람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열 사람이라면 그 도리를 공부하지 못한 컴컴한 사람으로서는 사람 되기가 열 명 중에 두 명 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왜 우리에게 이득이 없느냐 하면, 인간에게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 세계를. 예전보다도요. 예전엔 그렇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방에 앉아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 자기가 벌써 계발이 된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기를,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난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는 그냥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가서 컴퓨터에, 자연 컴퓨터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박혀 있는 대로 길을 갈 것이고, 자기가 자유권을 갖고 자유자재한다면 그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미리미리 그렇게 다 해서 자기가 한 찰나에 딸깍하면 그냥 옷만 벗는 거뿐이에요. 우리가 옷을 벗으려면 훌훌 그냥 벗죠. 그 순간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놓는 거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 못 한 사람은 '길다, 짧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 찰나다' 이거야. 이쪽에서 한 찰나는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저 집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 즉 한 찰나는 한 찰난데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저 집으로 들어가느냐야!

그러면 열 달이 걸리고 한 찰나가 걸리고 일 초가 걸리고 열흘이 걸렸다 또는 아홉 달이 걸렸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됐대도, 만약에 본래 이렇게 믿고 다니던 데에 아는 사람이 길잡이로 있다면 벌써 그것을 알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거야, 즉시! 막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홉 달이 됐다 하더라도 일 초로 축소한단 말이야, 이건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뜬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 하나 만나면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것이죠.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그러고도 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 하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으면 뭐,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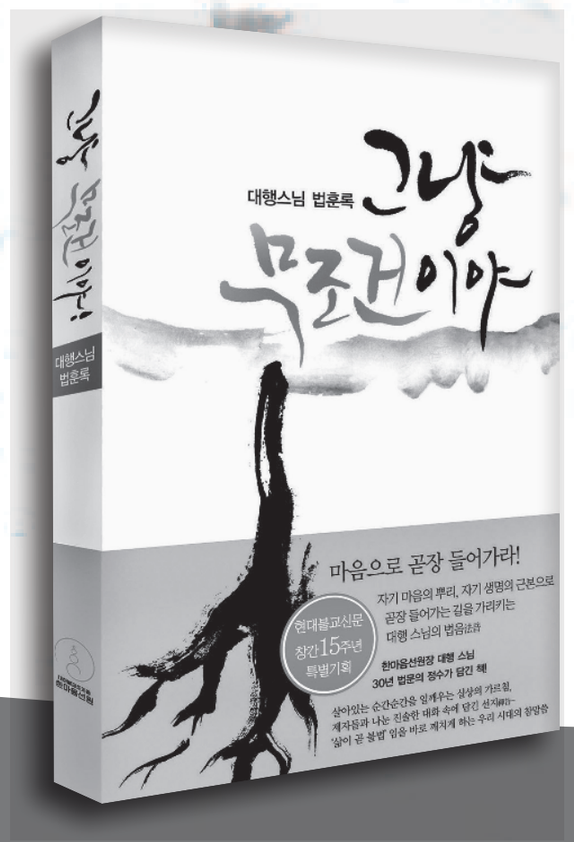
그러는데 이런 물건으로다가 비유해 볼 때도 무쇠가 물건으로 나왔다가 망가지죠? 그러면 그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무쇠 고물은 전부 한데 모아 놨다가 어느 회사에서 쓴다 하면 그게 쓰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원소 자체가 무쇠가 아니죠, 금이니까. 항상 우리는 한 찰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산이 되려면 되고 그냥 금덩어리로 돼 있으려면 금덩어리로 돼 있고…. 금덩어리로 돼 있어도 아주 귀하게 있단 얘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무쇠는 쓰다가 아무리 저거 해도 무쇠 쪼가리로 그냥 어느 곳간에 가서 그냥 쟁여져 있죠. 그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쓰던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또는 보석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쓰던 거라도 으레 보석함에다 넣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간직합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가 하면, 무쇠는 무쇠 쪼가리로 그냥 나가 동그라져 있다가 그것이 인제 쓰여질 때,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그것도 생산된단 말입니다. 생산이 되는데, 그것도 자기 차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 아궁이 뚜껑이 되느냐, 그래도 사람이 집안에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근기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엔진이 될 수 있느냐? 이 보링 하는 데에도 그러한 문제로 딴 금속하고 섞여서 또 어떠한 물체가 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섞이는 법도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쓰이는 법도 있고 또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중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씀씀이가 쓰이는 거죠. 보석이 된다면 더욱더, 지금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지금 보석이 끼지 않고는 돌도 뚫지 못하고 또는 비행기도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보석이 되라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어디에든지 쓰이게 되고, 또 보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크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이건 잘못 갈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보석이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그것은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중요하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 마음 안으로만 낱낱이 돌리세요

☞ 17면에서 계속

게 쓰이는 데에 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꼭 이 공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면 절대로 그것은 세세생생에 해로운 것이 닥쳐온다는 얘깁니다. 왜냐? 그것이 습의 인과가 돼서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부모들 한번 잘못하는 까닭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바람에 그만 자기가 씨를 뿌려 놓은 거까지도 그냥 몇 대 손까지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 글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저 기도나 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식구가 다 금이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모두 우린 장사를 하기 땜에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가게 문 잠가 놓고 왔다 갔는데도 하루 종일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지, 어째서 이 중요한….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이 공부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선 급하죠. 먹고사는 문제, 그것도 이차죠. 그렇다고 해서 굶고 벌지 말고 다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버는 거 벌면서도 쪼끔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의 참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모른다면 죽어서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설법을 해서 당겨 주니까 여러분이 '아!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미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찾아가게끔 돼 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은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 보고 먹어 보고, 그래도 그러한 경험을 쌓고 맛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 그건 참 맛있더라. 그거 또 먹고 싶더라.' 이런 생각이 나고 '아, 참! 그 천은 참 좋아.' 이러기도 하고 '그 사람 참 좋기도 해.' 또 '집을 요렇게 지으면 참 좋을 거야.' 이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어우, 우린 왜 이렇게 광대뼈가 나왔지? 이거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출무상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죽을 때까지 기간이 바로 한 찰나의 기간밖엔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눈을 까뒤집고 하지 않아도 공부한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렇게 달라고 달라고 하고, 그렇게 남을 밀치고 그냥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쉽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음 씀씀이에 얼마나….

그래서 내가 남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 거지, 그게 공덕이 돼서 주어지는 게 있지, 이것은 내가 갖겠다 하고 일을 하니까 항상 남도 이롭게 되지 않고 자기도 이롭게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저 좋은 일을 해야지, 요것을 '내가 줬지' 하고 주면 요건 한계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요 몇 원어치가 있어요, 몇 푼짜리. 그러면 몇 푼짜리를 생각하고 내가 요렇게 규정을 지어서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면 몇 푼짜리밖에 나한테 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무주상 보시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몇 곱쟁이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도리를 여러분이 아셔서 이왕지사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면 욕심을 조그만 데다 두지 마세요. 어차피 욕심이 있걸랑은 그저 모르는 척하고 못난 척하고 그냥 아예 바닷물을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쪼금 쪼금 뭐, 누구 주고 안 주고 간에 내가 다 집어삼킬 수가 있어야 남에게 마음대로 줄 수가 있죠. 이왕 도둑놈이 되려면 아예 그냥 우주 전체 대천세계를 몽땅 집어 자시지, 뭣 때문에 그 쪼끄만 거 도둑질을 해 가지고 붙잡혀 들어가서 10년 징역을 받고 20년 징역을 받고 평생 징역을 받습니까?

>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진실하게 안으로,
> 낱낱이 안으로 굴리고 안으로 돌리는 거,
> 이 생활하는 모든 거, 죽고 사는 거, 생사윤회를,
> 모든 거를 내 마음 안으로 돌리는 데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인과응보를 받고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러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지 그게 감옥이 아닙니까? 창살만 없다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감옥이지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 한 사람만이, 해가는 사람만이 바로 자유롭고 그럴 겁니다. 아무리 창살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건 자유로울 겁니다. 돈이 없이 산다 하더라도 풍부한 대장부의 살림살이일 거고 말입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어느 생물이 사는 데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고정되게 있다면 그건 진리가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어디까지나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게 어떠한 모자라는 일이라도, '아하, 저 사람은 참 몰라.' 이러더라도, 또 '저 사람은 참 대인이야.' 그러더라도 대인은 대인대로 넣고 소인은 소인대로 넣어라 이거야. '소인이다' 하고 꼬집어서 업신여기지 말고 '대인이다' 하고선 아주 높다랗게 보지도 말고 오직 나로만 봐라 이거야, 나! 얕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나한테 낱낱이 안으로 굴려라 이거야. 안으로 돌려! 내 마음 안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지금 농담으로 '왔다' 죠.

그래서 전자의 부처님들도요, "책도 보지 마라. 앉아서 좌선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니 전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두가 참선이니라. 그것을 납득하고 깨쳐라. 그 자고 깨고 모든 살림살이를 네 마음 안으로만 낱낱이 돌린다면, 어디서 구하겠느냐. 딴 데서 찾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 바로 또 자기가 자라서 맘대로, 그 도구를 지혜롭게 길러 가지고서 그 지혜를 도구 삼아서 마음대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을 때에 비로소 남을 이익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신으로부터 남의 육신이 둘이 아니거든. 선지의 중생이 있고 또 악인의 중생이 있거든.

그러니 중생이다 부처다 둘이 아니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본래 이 도리는, 처음에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랬지마는 나중에 그 도리를 알고 보면 '아, 내가 본래 살아나온 것이 아니기에 죽을 것도 없구나. 아! 옮겨 놓을 뿐이로구나. 모습을 바꿔 놓을 뿐이로구나. 어차피 그럴 거라면 모습을 이걸로 저걸로 바꿔 놓는다, 없앤다 이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된다면 구태여 내 몸을 가지고서 화해서 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모두가 내가 될 줄 알고 앉아서 그이를 나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병이 났으니, 지금 죽게 됐으니, 머리가 돌았으니 이거 좀 고쳐 주시오." 하고 전화를 했어도 내가 갈 줄을 알아야 어떻게 하지. 만약에 육신으로 간다 하면 못 가잖아? 그럼 내가 천 개도 되고 만 개도 되고 때에 따라서 일거리가 없으면 두 개도 되고 한 개도 되고 이럴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으로만 찾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고 물을 떠 놓고 빌고 온통 야단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신들을 꽉 그냥 불러 놓고선 내보낼 줄을 모르는 거야, 불러 놓기만 하고는. 그러니 망할 수밖에. 하하하. 자기가 앉을 틈도 없이 갖다가 모셔다 놓는 거야. 신장이니 지장이니 무슨 뭐니 다 불러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진짜 지장이 옵니까? 전부 가짜지. 자기가 가짜기 때문에 가짜만 오는 거야. 거리 중천에 떠다니던 신들도 '내가 바로 서산 대사다. 지장보살이다.' 이러고 온다고. 그거에 속는다고, 다! 그러면 모습만 그렇게 그려 놓고선 자기가 그렇게 찾아봤던들, 그 안에 그냥 욱시글득시글하는 거야.

그러니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 자기도 가짜요, 그것도 가짜라는 얘기야. 자기가 가짜니까 그것도 가짜지. 가짜가 득시글득시글하다 보니까 가짜 짓만 할 수밖에. 그러니 집안에 뭐가 좋아요? 온통 망하고, 무당 집에는 무당이 꼭 나고, 박수 집에는 박수가 꼭 나고 이렇게 유전이 되게끔 만들어. 이게 뭔 짓들이야, 글쎄? 아니, 사람이 그렇게 그냥 남의 꼭지에 매달려서 다녀야만 돼? 그래?

나는 만날 설법이라는 게 이런 것만 하니 글쎄, 이걸 어떡하면 좋우, 또? 허허허…. 아니 글쎄, 부처님이 좋은 말씀 해 놓으신 거를, 그거를 차곡차곡 그냥 넘겨 가면서 얘길 해 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단 말이야. 또 난 못나서 그걸 차곡차곡 이렇게 넘기면서 얘기 못 한다고. 내 말이라야 이렇게 그냥 순순히 나가지, 남의 말은 또 그냥 어줍어서 말도 못 해. 그리고 그거는 벌써 한 다리가 지나서, 어저께가 벌써 과건데 아니, 어저께 방편을 쓴 거를 오늘 말을 하면 되겠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못났더라도, 말을 잘못하더라도, 순서 없이 하더라도 배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차곡차곡 들어 줘요. 그렇게 해서 낱낱이 듣는 대로 자기 그 마음으로 그냥 돌리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어떻고 안 잊어버리면 어떻겠소. 듣는 순간순간 그냥 자기 마음으로 드는데. 말한 거야 잊어버려도 상관없거든. 벌써 듣는 순간 주인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게 벌써 직감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건 뭐, 멋들어지게 자기가 활용하는 데에, 체험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듣고 안 해 본 거라면 모든 걸 또 해 보게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길잡이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그전에 나도 무척 애를 쓰고 배운 거거든. 내가 항상 그러죠. '야! 너, 이게 길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야. 아, 신작로를 두고 길이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난 그렇게 애를 쓰고 배웠다고요.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그럼 길이 어떤 건가?' 내 스승은 내가 찾았지마는 내 스승한테 내가 배우는데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길이 아니고 저 아주 삐죽한 산 너머, 풀이 그냥 뭐, 나무가 그냥 빽빽하게 들어선 거길 길이라는 거라, 응? 대번에 그걸 말을 해 주면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빙그르르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내가 나한테!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나한테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으로 낱낱이 돌리면 거기에서 참자기가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하! 저기 길만 길이 아니라 아, 그렇지. 체가 없다면 길이 길이냐?' 이거야. '그러니 내가 발이 없어야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발이 있는데 있는 길로만 찾아다니지 어째 없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거 생각하는 데에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렸기에 그 도리를 그때서야 알았겠습니까? 참, 지금처럼 나 같은 못난이라도 좀 있어서 이루종차 좀 일러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러 줘서 아는 거는 아니되거든, 또.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자기가 찾아 가지고 자기가 바로 자기 스승한테 배워야 돼. 길을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 우리가 설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법을 해도 진실로써, 남의 말, 죽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생활에 지침이 되고 공부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설법을 하니깐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걸로 돌렸다간 여러분에게 죄 이익이 없이 하고 나는 나대로 귀신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귀신을 만들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날까지 공부를 해 나왔는가.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가.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상황 상황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이 때로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나가도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잘 나가는 걸로 생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위 법문은 1986년 4월 21일 일반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생각 내려놓기

어떤 상황도 '이렇다' 혹은 '저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 조건과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그냥 있어요. 나타내는 것(색)에 실상(공)을 몰라서 좋고(탐) 나쁘고(진) 집착합니다. 어떤 것은 100% 좋고 어떤 것은 100% 안 좋다고 착각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연기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공(空)하다는 것이에요. 이 실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것에 속아서 집착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알지 못하면서 좁은 판단에 집착해서 고통을 만들어요. 잘 모르면서 집착하지 맙시다. 잘 알면 집착이 없고 이해가 되어서 자비로 이어져요.

우리의 수행은 '내려놓는 것' 입니다. 자기 의견, 판단, 집착, 원한 등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통찰이 오기 시작합니다. 통찰(지혜)이 있으면 자비롭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자비로 표현이 됩니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습관적인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이 비결이에요. No Touch!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을 그냥 두는 것을 배워야 해요. 엉키면 고통이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명상이에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⑥ 동티베트– 오명불학원

티베트 스님 원력 만들어낸 '현세불국'

천신만고 끝에 오명불학원이 있는 쓰촨성 써다(色達) 티베트 자치주에 도착했다. 입구를 지나 오명불학원에 오르는 오르막길은 종교가 이룩한 인간승리의 현장이다. 산비탈마다 성냥갑같은 작은 건물들이 층층이 신기루처럼 펼쳐진다. 오직 불교학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곳에 모인 티베트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만들어 낸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우담바라가 피어난 듯 하다.

1980년에 닝마파의 고승이었던 직메 푼촉(晉美彭措)이 3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작은 사원을 세우고 불학원을 열었다. 그런데 직메 푼촉의 명망을 듣고 주위의 티베트인들 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1990년대에는 1만 명이 넘는 사실상의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3만 명이 넘는 스님들이 모여 6년 혹은 13년간 불학을 연찬하는 대규모 불학원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수행자와 불법이 능히 세상을 변혁케 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다. 필자와 모든 스님들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해발 4000m의 오지에 자리한 티베트 불교 최대의 오명불학원은 그 자체로 위압감과 함께 성스럽고 때론 치열한 비장감을 선사한다. 누구나 난생 처음 보는 놀랍고 신비한 풍광, 산 전체가 붉은 집으로 층층이 가득한 모습과 그들의 치열한 삶과 수행의 모습들, 천장(天葬)과 오체투지하는 사람들…. 오명불학원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노라면, 알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한 줄기 바람에도 문득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친다.



세계 최대 승가대학인 오명불학원의 장엄한 모습.



깐즈에 입성해 백옥탑에서 바라본 설산의 모습.

세계 최대 규모 불교학원 도시
3만 명 수학 중… 6~13년 연찬
中정부 2016년 철거, 출입 통제

오명불학원에 올라 중앙광장 근처의 접견실에서 환영행사와 함께 교류협력을 논의 했다. 지도법사인 정우 스님이 감격에 겨워 감동적인 법문을 해 주셨다. 우리는 대중 스님들이 십시일반 보시금을 모아 "이왕이면 비구니 학인스님을 위해 써 주셨으면 한다"며 전해 드렸다. 이곳은 일정한 보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비는 물론 집과 음식 등 일체의 숙식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와 십 수 년을 공부하는 모습은 감동이다.

환영행사 후에 불학원 견학에 나섰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티베트 스님들의 얼굴에는 자비와 행복이 가득하기만 하다. 그 맑은 눈동자와 가식 없는 미소만으로도 맑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화하는 느낌이다. 어찌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리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오명불학원을 둘러보고는 작은 광장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사방으로 펼쳐진 현세불국의 장엄한 모습들을 저마다의 가슴에 담아본다. 온통 붉고 흰 집들이 사방으로 사천왕인양 병풍처럼 빙 둘러 자리한다. 중앙광장의 법당과 전각은 한 송이 거대한 연꽃이나 우담바라를 보는 듯 하다. 아니 이곳 전체가 수천수만의 연꽃마다 수천수만의 불보살이 시현하는 화장찰해 같았다.

오명불학원에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에서 마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아니 이미 이곳은 현실정토이자 현세불국이며 화장찰해의 부처님 마을이자 부처님의 나라인 것이다. 해가 지고나면 이곳은 밤하늘의 별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휘황한 채로 불야성을 이루며 장명등처럼 찬란한 법열과 함께 알 수 없는 적막과 슬픔에 잠긴 채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누구는 천장터를 가 보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오체투지를 하는 곳에 가 보자고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다. 지금 출발해도 숙소에 밤 10시가 넘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명불학원을 내려가는 길에 자꾸만 뒤돌아보게 된다. 마치 내 님을 남기운채 다시 못 올 곳으로 떠나가는 느낌이다. 언제고 꼭 다시 찾아가겠다는 허튼 맹세를 해 보건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7월 20일부터 대대적인 오명불학원 철거작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그곳의 어느 스님이 올린 트위터에는 철거 사진과 함께 "오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수한 날이다. 바로 오명불학원이 훼멸된 날이다. 우리는 영원히 2016년 7월 20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피눈물로 증언하고 있다. 다시 오명불학원이 수복되어 중흥을 이루고 이로 인해 부처님의 진리의 태양이 날로 휘황하고(佛日增輝), 불법의 수레바퀴가 항상 굴렀으면(法輪常轉)하는 바람이다.

저녁 무렵 오명불학원을 출발한 버스는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에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을 힘겹게 달린다. 그러다 급기야 바로 앞에서 유조차가 진흙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교통편도 구할 수가 없어 새벽까지 전전긍긍하다 스님들이 나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넘어 잠시 눈을 붙이고는 이내 다시금 길을 나섰다. 이것도 지나고 나면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만 실로 아찔하고도 황망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점심 무렵 드디어 동티베트의 거의 마지막 교통요충지이자 야칭스(亞靑寺)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간쯔(甘措)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고는 백옥탑으로 향했다. 눈이 부시게 하얀 티베트식 백옥탑이 주위의 설산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다. 바람에 휘날리며 타르쵸와 룽다의 물결이 푸른 하늘을 오색으로 물들이며 휘날린다.

백옥탑을 나와 시내에 있는 한인사(漢人寺)를 참배했다. 티베트인과 한족이 함께 평화와 공존을 이루며 화해하는 듯한 절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달라이라마의 법문 VCD가 상영되고 있어 놀라웠다. 저녁 시간에는 시내에서 선물 등을 쇼핑하며 보냈다. 필자는 멋진 티베트식 모자를 사서 쓰고 다니니 모두들 현지인 같다고 놀려댄다. 현지인과 마주앉아 수요우 차를 마시는데 나를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냥 이곳에 눌러 살아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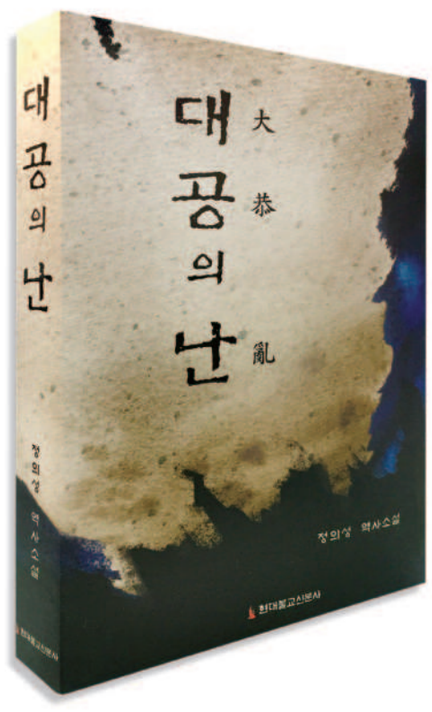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부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BTN 대표이사 서성우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대행선 및 불교 사상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자들에게 학술지원을 하기 위해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daehaeng.org
▶ **E-mail** : ds7788@hanmaum.org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3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공모기간** : **3월1일 ~ 3월 31일**
●**선정분야**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한마음연구』 투고 논문 접수

●**분 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시 기** : 연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자 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원고료** : 400만원 (『한마음연구』게재 확정시)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제2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공모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작성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공모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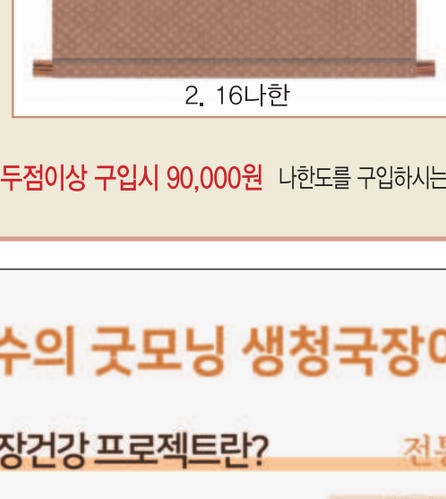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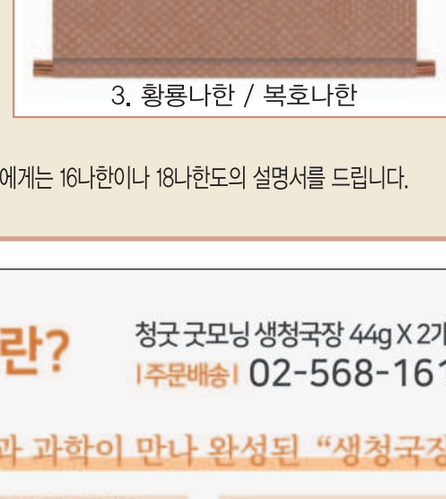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주문배송 02-568-1611 | www.chunggood.com

청굿

낫토가 아닙니다

굿모닝 생청국장
종주국의 자존심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전통발효음식 K-Food!
특허 받은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

냄새도 안 나네?

無 첨가제
無 방부제
천연꿀
100% 국산콩



이계호 교수의 굿모닝 생청국장이란?

청굿 굿모닝 생청국장 44g X 2개입
|주문배송| 02-568-1611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란?

전통과 과학이 만나 완성된 "생청국장"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연구기획과제로 선정된
국가 R&D 프로젝트입니다.

이계호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
2016년 ~ 2020년 54개월간 청국장의 과학화, 표준화 작업

표준화(균주 및 제조 공정) → 활용다양화

유해물질 최소화
바이오제닉 아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해미생물, 냄새

유익물질 최대화
이소플라본
아미노산
PGA
비타민 K2

활용다양화
제품의 기능, 모양, 질감,
맛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성별, 세대별, 국가별 수요 확대

특허번호 (제10-1860836호)

떠먹는 생청국장, 왜 더 좋은가?

특허받은 전통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유익물질을 극대화하여 청국장의 특유의 냄새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본의 바실러스 낫토균을 능가하는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1,000억마리를 담았습니다.

과학화/표준화 → 유익 물질 최대화 / 유해 물질 최소화 → 청굿

순창 전통 장류에서 발굴한 장 건강에 좋은 균주로 뛰어난 내산성, 내담즙성, 혈전분해활성,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가 뛰어나며 바이오제닉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늘어나는 장 속 유해균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균주!
청국장에서 찾았습니다.

순창군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5개 대학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안전 먹거리 기본 회복 전도사 이계호 교수 주도 연구
발효 공정의 과학화, 균주표준화, 제조공정표준화
논문 13건, 특허 9건, 다양한 학술지 발표 / 수상 (22 / 2)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분석을 통한 장기능 개선 기능성 검증